예술담론계간지

대문

daemu:n

ISSUE 18

SUMMER

2016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대구문화재단



Contents

기획특집

캐리커처 에세이 _ 건축가 정경운 002

문화예술로 '興' 하고 '興' 나는 대구
기획의도 _ 대구문화, 세방화의 길을 묻다 010
대구문화의 세계적 가치와 가능성 012
지역예술의 세방화를 위한 제언 018
축제의 시대, 세방화 시대 024

대구예술의힘

음악 _ 유럽에서 활동하는 대구출신 작곡가 이도훈과 장은호 032
영화 _ 리얼리즘, 휴머니즘 그리고 이창동 감독 040
연극 _ 연극인 故 박상근 선생님을 추억하며 046

문화비평

음악 _ 함께 나누며 만들어가는 사랑의 돋움 음악회 054
미술 _ 유리상자 – 아트스타가 거쳐 온 지난 10년 060
영화 _ 대구와 영화가 만난... 그 아스라한 기억에 관한 영화 066
뮤지컬 _ 10살 딤프의 성과와 과제 072
무용 _ 대구시립무용단 History & Vision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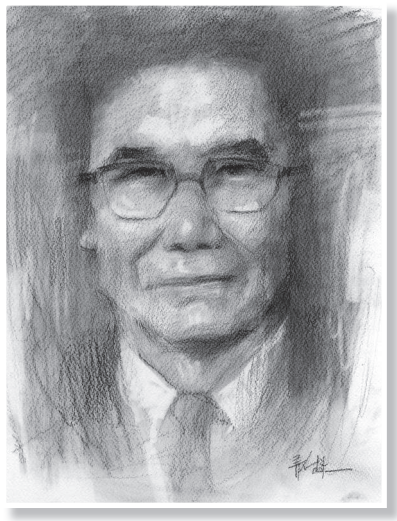
문화공감

예술정원 '藝園'
예술비평 Ⅰ _ 네오클래식 5번째 무대, 프랑스 현대음악의
신비로운 색채와 경건한 울림을 전하다 086
예술비평 Ⅱ _ '264 작은 문학관' 의 개관과
노태맹 시집 『벽암록을 불태우다』 092
대구, 지금 여기_ 작은 문학관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098
대구, 지금 여기_ 아트클럽 삼덕 – 청년작가의 꿈을 키운다 104

재단소식

대구메세나협의회 공식 출범 _ 기획홍보단 110
대구문화재단, 지역 유망 예술가 베를린 파견 _ 예술진흥본부(예술진흥팀) 112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출범 _ 경영본부 114
거리와 예술이 하나되는 大명동마켓! _ 예술진흥본부(차세대예술팀) 116

대구건축의 입지를 세운 일산(一山) 정경운의 건축과 삶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이 정 호**
서양화가 | **류 성 하**

프롤로그

대구의 건축을 말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거슬러 1950년대에 활동한 제1세대 건축가들을 거론하여야 한다. 정경운, 이성해, 이종만, 윤학기, 고만권 등, 그들이 대구 건축계의 초석을 다진 분들이다. 그 이전 대구 최초의 건축가는 '소미까이' 라는 일본인이며 대구 건축사 1호인 '고만권' 이 스미까와(구 매일신문사옥, 도립병원설계) 사무실에서 배웠고 그 후 시라이(의과대학, 측후소설계)라는 영선계장이 있었다.

1940년 무렵 현재의 건축사 시험인 건축업무대서사라는 시험(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지방도청소재지 중심으로 시행)이 있었는데 일본인 2명과 한국인 45명이 합격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대구는 한국전쟁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건축이 다른 도시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 전체적으로는 50년대 중반, 학교건축을 시작으로 80년대까지 약 30여 년간 대구의 건축이 활발했는데 그 선두에서 중요한 건물은 대부분 정경운 교수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대구 건축교육의 첫 번째 교수로서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였으니, 명실상부 대구건축의 초석을 다진 분이라 할 수 있다.

북의 엘리트로서 대구에 정착한 교수건축가

정경운은 1924년 3월 7일 평안남도 평양시 선교읍 36번지에서 정일화, 김칠성 사이 2남 6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944년 12월에 (21세) 대련공업전문학교 건축과를 수학 후 2차 세계대전중인 때, 만주철도의 자회사인 (주)만주개발이란 군수공장 건설현장의 철골공사 파트에 배치되어 일하게 된다. 낮에는 현장을 감독하고 밤에는 철골 샵 현촌도(현장에서 공사하기 위해 제작하는 실제 공사용 도면)를 선배에게 물어가며 그리는 등, 청년기는 주로 만주에서 일을 하였다. 그 후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1948년 9월에 평양공과대학 건축공학과에 입학, 학생 신분이면서 동시에 1949년 3월 진남포 공업전문학교 건축공학과의 전임강사로 1950년 6월까지 강의를 하였으니 학생이면서 동시에 교수직을 겸하는 생활을 한 셈이다.

한국전쟁의 여파로 1950년 8월, 평양공대를 한 학기 당겨 조기 졸업한 후, 인민군이 아닌 한국 공군에 입대하게 되고, 공군시설 학교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공군본부가 있는 대구로 오게 된다. 북한사람이 한국군에 입대한 이유와 고향이나 가족을 등지고 대구로 온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함구하였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남하로 인하여 대구가 제2의 고향이 되었고 선생이 살던 자택이 있던 중구 삼덕동 3가 153번지가 본적지가 된다. 선생은 북한사람에서 남한사람이 된 것이다.

군 복무를 하던 시기, 6 · 25직전에 설립된 청구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시작으로 건축 공부를 시작한지 15년이 지난 때, 이론과 실무를 익힌 경력 끝에 1954년 4월 청구대학 공학부 건축공학과 전임강사로 대구의 건축공학과 교수 제 1호가 되어 본격적으로 교수이면서 건축가를 겸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66년 3월에 잠



시 대구대학교 이공학부 건축공학과로 옮겼으나 1968년 2월 두 대학이 영남대학교로 합병되면서 1976년 3월 학교를 떠날 때까지 영남대학 건축공학과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교수로서 그리고 지역건축계에 설계의 리더로서 열정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교직을 떠난 1976년 3월, 잠시 만경관 부근에 위치한 김성림내과 3층에서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대학설립부터 건설단계까지 함께 모셨던 그의 가장 큰 후원자이면서 멘토였던 이선근 영남대학교 초대총장이 동국대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권유와 추천으로 1978년 3월 동국대학교 교수로 가게 된다. 그 후 1987년에 정년으로 교수직을 끝내면서 활동도 마치게 된다. 선생의 공적 활동과 결과물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기술하면, 1963년 경상북도 문화상을 수상하고 1964년에 한국건축가협회 초대 대구지회장을 역임 했으며 경상북도지사 감사장 2회, 대구은행장 감사장 외 8회, 수차례 대구시장 감사장 등을 수상했으며 기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서 교육적, 실무적 양면을 통해 지역건축계의 발전을 선도한 교수였고 건축가였던 것이다.

건축수업 그리고 건축관

선생이 어느 대담에서 대구의 첫 인상을 전형적인 시골촌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 출생지인 평양에서는 제법 좋은 환경의 집안에서 자란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구에서 공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하숙을 하던 하숙집 딸과의 로맨스는 결혼으로 이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대구에 정착하게 되는데 부인은 꽃꽂이 선생이었으며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그는 원래는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집안에서 공과계통을 원하여서 당시 첨단 분야인 항공공학과를 지원하게 되나 실패하고 2지망한 건축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건축을 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구술하고 있다. 학창시절 당시는 2차 세계대전 시기라서 공부보다는 노동 동원령으로 차출되었고,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 선생 역시 배고팠으나 그리스 오더를 밤새워 그리고 색칠하며 그 시기를 견디었다 한다. 우연히 고서점에서 구한 존 러스킨의 〈건축의 칠등〉을 감명 깊게 읽었으며, 당시의 세계적인 건축가였던 미스, 라이트와 꼬르뷔제의 건축기계설과 바우하우스 등을 듣고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건축 비예술론, 비인 세제션, 일본 분리파 등의 사조에 대해 채 정리되진 못했으나 열정적으로 공부하면서 기능주의와 국제주의 양식 등을 토론하였다고 한다. 선생은 후에도 반복해서 젊은 시절 우리나라의 특수상황 때문에 건축철학을 수립할 수 없었음을 매우 아쉬워했다.

6 · 25 직후에는 대구에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일이 청구대학 교사건물(중앙공원이 들어서면서 철거됨)의 설계, 감리였다. 이 건물은 미군군수지원으로 건립한 2층 벽돌조로 슬라브와 보는 철근 콘크리트조였다. 당시 전문기술인이 없어서 모든 공정을 직접 진두지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건물을 지을 때 목수가 거푸집을 깨끗한 면과 거친 면을 반대로 짰다는 당시 건축시공 수준에 대한 웃지 못 할 에피소드와 기둥 간격이 큰 건물은 거푸집 해체 때에 목수들이 겁을 먹어 선생이 그 밑에 직접 서 있으면서 해체를 독려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선생의 말을 빌리면 50년대부터 주로 학교건축을 설계, 감리하게 되는데 건물의 공간을 확보하기에 급급해서 디자인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고 70년대에 들어서서야 건축 상황이 다소 정비되었고 건축을 제대로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다 한다.

당시 세계 건축계의 흐름을 읽고 있던 선생은 1961년 2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건축가 연맹 총회, 4월에 세계건축가연맹 파리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면서 그해 9월까지 남미와 유럽의 건축을 보고 돌아왔다. 이후 1964년 일본의 교육시설을 둘러보는 일련의 건축순례를 통해서



그는 당시 국제주의 양식에 대한 반성으로, 자국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방향의 현대건축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상을 갖게 되었고 그 연유로 한국 전통문화의 확립을 건축에서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김중업이 1952년 유네스코 세계국제 예술가회의에 건축가 대표로 참석 한 후 이를 계기로 꼬르뷔제 문하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시기와 김수근이 1961년에 국회의사당 현상공모에 당선되어 일본에서 귀국한 시기와 비교해 봐도 그의 세계건축의 흐름에 대한 식견은 상당하다고 보인다.

선생이 전통문화에서 현대건축을 추구하는 사고를 보면 "땅은 인간감화의 어머니이고 또 건축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기후 풍토에 뿌리내린 건축을 추구해야 한다. 그 지역의 자연조건에 맞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남는 개성 있고 아름다운 건축이어야 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건축가로서는 큰 행운일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1968년 3월부터 1975년 2월까지 영남대학교 건설본부장을 맡으면서 수행한 영남대학교 경산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과 설계는 건축인 모두가 공감하는 선생의 대표작이다. 이 설계에서 선생은 그 시대의 대학교육 시스템을 먼저 생각하였고 자신의 젊은 시절, 즉 일제치하의 교육방식과 비교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공부할 수 있는 Open system이 뿌리내릴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 고심했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평소 본인의 말처럼 한국 전통의 현대적 구현과 대학 캠퍼스로서의 공간성의 추구에 몰입한 듯하다. 작품에서 당시 최신의 공법과 형태를 각각의 건물의 기능과 성격에 맞추어 실험을 하듯이 하나하

나 만들어 갔다. 특히 그는 건축가들이 설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공간'에 대해 시대를 앞선 생각, 즉 공간의 수명은 생각보다 짧다. 사회의 요구에 따라 즉시 원하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일반사람들이 원하는 요구에 맞추는 가변성을 가진 공간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의식을 이끌어주며 더 나은 공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를 앞서가는 건축을 말하는 것이다.

더불어 건축가의 바람직한 창작태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은 비생산성건물과 생산성을 위한 건물로 구분하여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비생산성건물은 예술성이 필요한 건축으로, 학교나 오피스 같은 생산성건물은 기능성과 가변성을 가지는 건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열정적인 활동도 70년대 대학교수의 설계사무소 겸직 불허라는 제도와 영남대학을 떠나게 되면서 다소 소원해 진다. 그러나 가슴속에는 늘 건축에 대한 열정과 학습을 계속하였는데 선생은 건축이론 자체보다 설계에 적용 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의 통합을 위한 연구를 통해 자신의 건축관을 확립하고자 갈망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한 세간의 평은 긍정적이다. 60년대부터 70년대에 온 건설 붐의 시기에 정경운이야말로 40대 중반과 50대 중반의 한창 혈기 넘치는 시기에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수행한 행운아이면서 동시에 남들은 평생 경험할 수 없는 건축과 인생을 풍부하게 체험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주요작품으로는 1956년 구 국세청 건물을 시작으로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서울 뉴 코리아 호텔, 영남전문대학 도서관. 경상북도 청사, 대구대학 본관(현 영남대학 의대 본관), 고려예식장, 충혼탑, 경북교육위원회 청사,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문리과대학, 경상대학, 대구은행 본점(현 대구 남일동 지점),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중앙도서관, 대구은행 중앙지점, 대구은행 신암동지점, 경북대학교 부속병원 신관A동, 대구은행 경주지점, 대구은행 서지점, 대구은행 동지점, 경북대학교 부속 외래진료소 등이 있다.

에필로그

필자의 학창시절(유신반대 등 혼란기)에는 당시 대부분 그랬듯이 교수님들의 강의를 학기 초와 기말 때 몇 차례 듣게 되는 정도인데 캠퍼스 건설 본



부장이었던 선생의 강의를 들을 기회는 더 적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이론이 바탕 된 간결명료한 해석은 실질적이어서 오랜 후에도 깊이 뇌리에 남아있다. 특히 졸업생 사은회 자리에 오셨을 때, 필자를 기억하시고 옆자리로 불러 "이군, 건축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스 로마 건축부터 공부하게"라고 하셨다. 그해가 그분이 정들었던 영남대학을 떠나시던 해였다. 후일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선생의 대표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의 멘토로서는 르 꼬르뷔제를 생각하였고, 전통성을 담는 디자인으로서는 겐조 당케를 따랐음을 엿볼 수 있다.

말하지 않는 말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선생은 말을 아끼는 분이었다. 평소 제자들을 보면 씩 웃어주었고 늘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걷는 모습이었다. 그는 영남대학의 건설 1단계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학교를 그만두고 교단을 떠나 설계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그때 잠시 뵈었던 적이 있다. 선생은 작은 제도판을 책상위에 올려놓고서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대구은행 지점 건물의 투시도를 2소점 투시도 작도법에 따라 직접 그리고 계셨다.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그때 선생님께 "다시 태어나시면 또 건축을 하시겠습니까? 건축가와 교수 중 한 가지만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엉뚱한 질문을 드렸는데 "당연히 건축을 할 것이고 다시 태어나면 작가가 되고 싶네."라고 또렷이 답하셨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한 생이 한 사람을 나타내 준다. 선생은 내공 있는 인간이자 건축가로서 대구 건축계의 하나의 산이었다. (1986, 1988 대구건축지, 1987년 12월 일산 정경운 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참고) DaeMun

기획특집

문화예술로 '興' 하고 '興' 나는 대구

기획의도_대구문화, 세방화의 길을 묻다_박승희
대구문화의 세계적 가치와 가능성_임언미
지역예술의 세방화를 위한 제언_김인설
축제의 시대, 세방화 시대_권순종



대구문화, 세방화의 길을 묻다

영남대 국문과 교수 | **박 승 희**

지역의 문화예술은 그 지역의 심연에서 만들어지는 고독의 산물이다. 지역의 자연과 공간 이미지에서 예술적 색감과 독창적인 문화적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예술적 메타포의 원천이 된다. 예술적 에너지가 작가의 성장기에 내재된 지역과의 친화력과 교감에서 비롯된다는 결과도 있는 걸 보면, 문화예술의 지역적 정체성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으로 지역과 시대, 지역과 세계의 공유 내지 교감, 나아가 그 충돌의 과정이 문화예술의 탄생과 깊이 관련된다는 사실은 또 다른 주목을 요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지역 문화예술과 세계의 만남, 지역 문화예술의 세계적 가치와 가능성을 진단하는 글과 토론이 한창이다. 지역 예술의 세계성, 지역 문화의 글로컬리즘Glocalism이 제법 속도를 내며 문화예술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의 세계적 위상이나 눈높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지역 예술의 세계적 유통까지도 흥미로운 주제가 되고 있다.

잠시 프랑스 파리 이야기를 해보자. 프랑스 파리는 말 그대로 세계적 예술의 본거지이다. 파리 예술이 곧 세계 예술이고, 그들의 흐름이 세계 문화의 미래가 된다. 또한 그들은 문화예술의 창조에서 재구성, 유통에까지 그들의 예술의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



든다. 새로운 디자인과 독창적인 이미지가 세계적 상품으로 재구성되거나 유통의 핵심적 기제가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의 무엇이 예술의 세계성과 문화적 독창성을 실현시키는가. 흔히 프랑스 몽마르뜨 언덕을 프랑스 예술의 증거라고 한다. 물론 그곳에는 현대회화와 현대시의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 물랭루즈를 중심으로 하는 미요와 베를리오즈, 그리고 고흐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몽마르뜨 언덕이 프랑스 예술의 상징이자 자양분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몽마르뜨 언덕의 중심부에 위치한 테르뜨르 광장을 메우고 있는 화가와 예술가들, 그들의 열정과 예술적 상상력이 그 핵심일지 모른다. 아니 그 곳에 있는 예술가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적 투혼이 프랑스 예술의 힘일지 모른다. 그들은 지역의 역사를 끌어안고 현재의 예술을 성취시키는 주체들이다. 지역 예술의 세계성과 가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적 집념에 보다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흔히 지역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말할 때, 우리는 습관처럼 지역문화의 세계적 위상이나 근거, 세계적 존재감만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에 내재한 예술적 독창성과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이들이 세계를 만나는 방식과 경험의 과정이다. 또한 세계 문화예술에 대한 읽기와 변화의 과정을 지역 속에 일상화 하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지역 문화예술가에게 지역이 예술의 존재론이라면, 세계는 자신의 예술 속에 담아야 할 상상력이자 형상화의 공통분모들이다. 그들에게 세계로 진화할 수 있는 내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 지역 예술의 세계화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닌가 한다.

오늘 이 지상紙上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이 세계와 소통하는 몇 가지 조언이 담겨져 있다. 소위 말하는 예술의 세방화지역세계화에 대한 원론적 이야기부터 지역 문화예술의 근본과 풀뿌리예술에 대한 탐색과 그 가치의 재발견, 축제 등 세계적인 포맷을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예술의 방향 모색 등이 제시되어 있다. 역설적으로 글들의 결론은 지역의 세계적 실현이란 과제에 앞서 지역 문화예술의 내적인 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지역 문화예술가들을 향한 존재적 관심과 지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DaeMun

대구문화의 세계적 가치와 가능성

지역 현실에 가장 밀착된 문화의 발견

대구문화 편집장 | **임 언 미**



대구오페라하우스전경

'문화가 살아야 도시가 산다.' 이제는 더 이상 생소한 말이 아니다. 미래의 도시를 상상하는 말도 더욱 아니다. 지금, 현재 세계의 문화도시라 일컬어지는 도시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베니스' 라고 했을 때 베니스영화제, 베니스비엔날레 등을 쉽게 떠올리고, '에든버러' 는 에든버러 축제, 파리는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등 하나의 문화시설 혹은 문화행사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사례는 충분히 많다. 이러한 랜드마크들은 도시를 살아 숨 쉬게 하고 엄청난 산업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끌어내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지자체들도 저마다 '문화 도시' 를 내걸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수많은 축제와 행사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극히 적은 수의 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뿐 대다수는 지역민에게조차 외면 받은 채 사라지는 게 현실이다. 어떤 것은 살아남고, 어떤 것은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대구'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랜드마크' 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글의 목적이 될 것이다.



'대구문화의 세계적 가치와 가능성' 이라는 넓디 넓은 주제의 원고를 청탁받고 가장 고민한 것이 '세계적' 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였다. 흔히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쉽게 끌어다 쓰는 '세계적' 이라는 단어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세계적인 것일까. 필자가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봤다. 교수님들께 가장 많이들은 말 중 하나가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그 분야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이었다. 어문학 가운데 국내에서 공부해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어국문학이라는 말은 정말 그럴듯했고,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충분했다. 일상 속에서 물과 공기처럼 접해온 것이 바로 우리말과 글 아닌가. 우리말과 글이 세계적이라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대구의 문화예술 가운데, 우리말과 글처럼 그 자체로 '세계적' 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 10년 사이 대구 문화예술계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1천 석 이상의 공연장을 여럿 갖추고 있고, 문화재단을 통한 지원시스템도 정착됐다.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을 비롯한 시민축제에서부터, 오페라축제, 뮤지컬축제, 사진비엔날레와 같은 예술 축제도 대구를 빛내는 예술 행사로 자리 잡았다. 큰 축제뿐만 아니라 대구는 연 중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가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됐다. 이처럼 급속히 팽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끝없이 찾아온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세계적' 이라는 수식어를 달 수 있는 것이, 이미 바로 우리 대구 안에 있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 예술이 탄탄한 도시

최근 '대구 안' 에 있어 온 문화적 역량을 점검할 기회가 있었다. 대구시가 올 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가입 신청서를 내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대구의 문화예술 콘텐츠' 에 대해 분석했다. 유네스코는 문학, 영화, 음악, 공예 및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 예술, 음식 등 7개 분야 중 뛰어난 창조성으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도시를 선정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004년 10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 연대사업의 일환으



로 시작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할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예술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현황, 예술가 설문조사 등을 펼쳤다. 그 결과 네트워크 가입 분야를 '음악' 으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가입신청서에서 대구국제오페라축제DIOF, 이하 디오프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이하 딤프 등 음악 관련 축제가 매년 열리고, 뛰어난 음악가, 풍부한 관련 인프라, 우수한 인재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2003년 지방 최초의 오페라 전용 극장으로 대구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되었다. 1천 5백 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이 생기면서, 같은 해 디오프가 시작되고 대형 공연물이 대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6년부터 딤프가 막을 올렸다. 디오프는 올해로 13회, 딤프는 올해 10주년을 맞으며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관 주도로 시작한 이 두 축제가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그 뿌리에는 바로 기초 예술인 음악, 그리고 대구 예술인들의 저력이 있었다.

가장 많은 음악 인구가 배출되는 도시, 대구 음악의 오늘이 있기까지 큰 공로자로 꼽히는 예술인이 故 이점희 선생과 故 김금환 선생이다. 그들은 한 사람의 예술인으로서 활발한 발표활동을 이었고 음악대학에서 교육자로서 오랜 기간 후학들을 길러냈다. 이점희 선생은 1950년 대구음악학원을 건립하고 1952년 대구음악연구회를 발족한데 이어 1953년에는 대구음악가협회를 결성했다. 1952년 효성여대가 설립할 때 음악대학 교수로 부임했고 1970년 영남대 음대가 생길 때 영남대로 부임해 정년퇴임 때까지 후학을 길러냈다. 1971년 여름 오페라운동이 시작되자 성악가 김금환 선생을 중심으로 대구오페라협회가 결성되고 이점희 선생은 지도위원으로 추대되어 활동하다가 1974년 대구오페라단으로 개명하면서 이점희 선생이 단장을 맡았다. 김금환 선생은 대구오페라운동의 불을 댕긴 대구오페라협회 창단 초대 회장, 또 대구 최초 오페라로 기록되는 〈토스카〉를 무대에 올린 연출자로, 대구 오페라 역사의 시작과 부흥을 이끌었다. 1971년 영남대 음대 교수로 부임했고 1971년 해 대구오페라협회를 창단, 초대회장을 맡으며 오페라 아리아의 밤, 오페라 연주회를 열었고, 1973년, 대구오페라협회 창단 공연이자 대구 최초의 오페라인 푸치니의 〈토스카〉를 연출했다. 1984년부



터 1994년까지는 영남오페라단 초대단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오페라와 교육에 헌신했다. 이점희 선생, 김금환 선생과 같은 음악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1991년 대구시립오페라단이 창단될 수 있었다. 이 두 분을 비롯한 음악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페라도시 대구의 오늘이 가능한 것이다.

다양한 음악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된 대구의 음악인들은 1981년부터 순수 음악축제, 대구음악제를 매년 개최하기 시작했다. 매년 작곡 발표회, 성악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이어오다가 29회 행사를 열었던 지난 2010년부터는 대구가 낳은 작곡가 박태준, 그리고 현제명을 기리는 음악제로 주제를 좁혀 펼쳐오고 있다. 향토 출신 음악가를 기림으로써 음악의 뿌리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흔히 오케스트라는 한 도시나 국가의 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척도라고 한다. 대구의 문화적 수준을 반영하는 오케스트라, 대구시립교향악단이하 대구시향의 역사도 대구 음악의 큰 자부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 공립교향악단이 창단된 것은 서울시립, KBS교향악단, 부산시립에 이어 대구시향이 네 번째였다. 이 또한 한국전쟁 후 문화 예술의 불모지였던 대구 지역에서 음악을 통한 사회 운동을 앞장서서 이끈 음악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휘자 이기홍 선생을 비롯한 음악인들은 대구에서도 교향악 운동을 할 필요성을 느꼈고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 1957년 6월 '대구현악회' 창단 이후, '대구교향악단'으로 개편, '대구관현악단'을 거쳐 '대구방송관현악단'으로 재창단하면서 교향악 운동을 활발히 펼친 결과 1964년, 대구시향 창단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올해로 창단 52회를 맞은 대구시향은 올해 두 차례 해외 공연을 기획하는 등 긴 세월 속에 쌓아온 탄탄한 저력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또 전국 최초의 민간합창단이 대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합창지휘자 장영목 선생은 1958년 아마추어 합창 단원들을 모아 전원합창단을 창단하면서 합창운동을 시작했다. 합창의 불모지였던 대구에서 합창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시작한 것이다. 1969년부터는 아카데미합창단으로 개칭해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쳤다. 1981년 대구시립합창단이 생기기까지 대구의 합창 활동은 대부분 아카데미합창단의 활동 역사라 볼 수 있다. 이 시절에는 순수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해 그들이 단원이 되었고 또 후원자도 되었다. 대구시립합창단은 그

시절 음악인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창단된 단체다. 그 때문에 대구의 합창이 세계적이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지금은 '시립' 단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시향이든, 합창단이든, 오페라 든 모두 1950, 60년대 음악인들의 열정이 뒷받침되었기에 오늘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음악' 에 한정해서 살펴보기는 했지만, 대구는 연극, 무용, 미술 등 기초예술의 다양한 분야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다. 그 탄탄한 뿌리를 바탕으로 한 기초 예술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에 우리는 대구의 문화예술이 더욱 크고 멀리 뻗어나갈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

풀뿌리 문화예술의 움직임들

1950, 60년대 대구의 예술인들이 노력한 결실이 현재 대구의 문화예술음악이라면, 미래 대구 예술을 책임질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움직임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큰 자본이 투입되는 대형 공연물과 축제들 사이에서 꿋꿋이 일상 속 문화예술 운동을 펼쳐 나가는 곳들이 있다.

예술은 으리으리한 규모의 공연, 전시장에서만 피어나는 것은 아니다. 작은 다락방, 소소한 커피숍 한가운데에서도 이를 함께 느끼고 공감해줄 이들이 있다면 충분히 '문화예술의 허브' 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단체이자 작은 공간인 '공간 울림' 과 '꿈꾸는 씨어터' 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대구 수성구 상동 좁은 소방도로에 위치한 공간 울림은 대구를 대표하는 작은 음악공간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4년 시작된 하우스콘서트가 벌써 20년을 넘어서면서 지역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음악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간 울림은 지난 2009년부터 '섬머 페스티벌 인 대구' 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첫해 '내가 사랑하는 모차르트' 로 시작해 2010년 유쾌한 바흐, 2011년 러시아로 가는 음악여행, 2012년 대구, 도나우가 흐르다, 2013년 '독일음악 秀作수작 걸다' , 2014년 '칸타빌레 대구' , 2015년 '대구, 스페인 광장에 서다' 를 주제로 열렸고 올해는 7월 8일부터 16일까지 '빠리에게 마법을 걸다' 란 주제로 섬머 페스티벌을 연다. 이곳에서 열리는 어린이들의 창의적 예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어른들을 위한 프로



그램인 '문예학당'에서는 음악 전공자의 생생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꿈꾸는 씨어터'는 2013년 1월 개관했고 소극장 밀집지역인 구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앞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앞산호텔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무려 2년 동안 직원들이 일일이 손보고 다듬어 예쁜 문화공간으로 단장했다. 120여 석스탠드 250석 규모의 아담하지만 '속이 꽉 찬' 공연장과 녹음 스튜디오,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지역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장이 되겠다는 것, 그리고 지역 브랜드의 공연 브랜드를 생산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을 개관 때부터 목표로 내세웠다. 이곳에서는 퓨전마당극, 넌버벌 퍼포먼스, 전통 타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공연들이 상시 공연되고 있다.

문화라는 것은 형체가 있기도 하지만 형체가 없기도 하다. 또 문화는 거창한 무언가일 수도 있지만 일상의 밥상과 같은 소박한 것일 수도 있다. 두 공간의 사례를 살펴봤지만 이 같은 작은 문화운동은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김광석길 인근을 비롯해 북성로, 향촌동 등지에 자생적으로 생기고 있는 크고 작은 문화공간들도 대구의 문화적 토양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몇몇 장르와 분야에 한정해서 살펴보긴 했지만 대구가 가진 문화예술 자원이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대구적인' 것이 탄탄한데 서울 '지방'과 비교할 일이 무엇 있겠는가.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지역 문화는 지역 현실에 가장 밀착된 문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구가 가진 문화예술 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다. 또 그 자원을 귀하게 여기고, 대구의 문화예술과 예술가들을 제대로 대접하고, 그들의 창조적 역동성을 재해석해내는 마음가짐과 노력이다. DaeMun



지역예술의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를 위한 제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김 인 설**

세방화 :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의 유래와 개념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아마도 세방화의 요점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 중 하나일 것이다. 세방화世方化란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지방화地方化를 의미하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을 합친 말이다. 비록 현재는 '지방' 이란 말 대신 '지역' 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지만 세방화란 용어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조합어다.

세방화 전략, 특히 지역예술을 위한 세방화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세방화 또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olization이라는 용어는 태생적으로 작위적이고 정치적이며 상업적인 성질을 일부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방화 중 세계화, 즉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라는 단어는 많은 논쟁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 세계화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사회구조적 함의는 국제적인 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의 증가로 인한 급진적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다.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세계화를 민족국가들의 약해진 정치적 자율성과 전통문화 파괴의 주범으로 진단하



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세계화를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는 전지구적 차원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세계화란 단어는 여전히 패권주의적 시각에 따라 때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치경제학자인 앤소니 기든슨Anthony Giddens은 세계화를 범세계적인 통신혁명에 의한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피할 수 없는 범국가적 현상으로 보았다. 결국 국가 간에 존재하던 상품, 자본, 노동, 정보, 문화의 장벽이 제거돼 세계가 마치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의 도래의 과정을 세계화로 이해했다. 다만 이러한 범국가적 현상의 주축을 서구가 이끌었다는 사실 때문에 세계화는 '서구화'로 잘못 인식되기도 했으며, 한때는 '문화적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로 전통문화를 잠식하는 경계의 대상 내지는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세계화란 단어가 급진적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방화 역시 경제와의 연관성을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 세방화glocalization란 신조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일본인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로 추후 롤런드 로버트슨Roland Robertson에 의해 세계화의 대안적 또는 한 단계 발전된 개념으로 널리 통용되게 된다. 세방화에 있어 세계와 지역의 역학관계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의 경우, 세방화를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의 대안적 관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국제화의 정의를 보면 세방화와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 국제화란 다른 나라의 국경과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이뤄지는 나라 간의 교류 또는 무역을 뜻한다. 국제화의 개념이 세방화에서는 국경 대신 지역local으로 대체되어 쓰인다.

『옥스퍼드 신조어사전Oxford Dictionary of New Words, 1991』에 따르면, 세방화glocalization란 '지역과 전지구적 고려를 병행하는 경영방침'으로 경영학 특히 마케팅 분야의 전문어로 정의된다. 1990년 초부터 경영학과 마케팅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세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의 고유성과 문화, 특징, 기호 등을 유지 하여 이를 차별화 전략으로 적용하는 것이 세방화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다. 즉, 세방화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표상하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영전략이 지역예술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예술과 지역, 그리고 지역예술

예술은 인간의 내적 사고나 감정을 외연으로 표현한 일종의 창작물이기에 이는 예술을 만드는 자, 즉 예술가에 대한 고찰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러시아 철학자인 체르니세프스키는 예술가와 예술에 관계성에 대해 "인간은 생활 현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의식적 내지 무의식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시인 혹은 예술가 또한 특수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묘사한 형상에 대해 적어도 자신이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예술가는 자신이 선택한 소재에 대해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신의 사상적, 정서적 태도를 함축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술은 본질적으로 예술가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발견한 그 무엇에 대한 판단이자 표현의 미학적 산물이다.

지역의 개념은 지리적인 관점과 인문환경적 관점으로 구분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 쓰는 '지역' 이란 뜻은 지리적 관점으로 다른 곳과는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적 범위라고 볼 수 있다. 인문환경적 관점으로 보면 지역은 언어, 문화, 기호 등 공간적 범위 내에서 고유한 성격을 지닌 지역성의 총체로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근래에는 지역을 단순히 지리 · 행정학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대신 사회 · 문화적인 동질성에 기반하여 구분하는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 지방이란 말이 통상 '비수도권' 을 뜻하는 말로 표현되어 왔다면,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인류학적 층위의 개념으로 특정한 '지역공동체' 를 함축하는 좀 더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술과 지역이 가지는 개념에 기반하여 지역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유해 본다면, 현재 우리가 쓰는 '지역예술' 이란 표현은 매우 협소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일반적으로 지역예술을 논할 때 우리는 통상 전통예술, 민족예술, 또는 지역의 특성, 역사 대표성을 띤 무언가를 주제로 다룬 예술을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어느 한 지역의 구성원으로


Glocalization



서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환경을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결국 우리 모두는 특정 지역의 '지역인' 들이며, 모든 예술가들은 어딘가에 속한 '지역예술가' 이다. 따라서 지역예술 또한 그 지역의 역사나 전통을 반영하는 창작물만이 아닌, 다분히 동시대적이며 일상을 담고 있는 창작물로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지역예술의 진정한 세방화–지역세계화를 위하여

세방화glocalization는 단일적인 세계성 구축이 아닌 각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전제로 한 세계화로 볼 수 있다. 로버트슨Robertson은 그의 저서 『글로컬라이제이션: 시간–공간과 동종성–이질성』을 1995년에 발표하며, 단일적 체계를 표방하는 세계화의 태생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계적global인 것이 지역적local인 것과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 상보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은 단순히 상업적 관점에서 떠나 문화비교학, 사회학, 지역학, 정책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지를 얻어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지역예술의 세방화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예술과 세방화에 대한 본질적 논의, 예를 들어 지역예술의 세방화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철저한 논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자칫 매우 병렬적이며 단순한 혼합구조의 창작물과 함께 세방화는 말뿐인 허상으로 끝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예술의 진정한 세방화를 위해서는 대구의 지역예술은 무엇을 뜻하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과 함의, 그리고 세방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의식 저변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세방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지역을 세계의 종속적 개념이 아닌 다양성의 개념으로 보는 원리가 단순히 물질적 또는 경제적 성장을 최우선에 두는 근대성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면 삶의 감성에도 트랜드가 있다. 과거 런던에서 나타났던 모드족이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등장했던 히피족들처럼 시대적, 문화적, 환경적인 배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들의 삶과 그 방식들이 주목을 받았고 그런 흐름들은 현재에도 꾸준히 이어진다. 물론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그런 흐름들이 굵직한 두께로 나타난 것에 비해 요즈음에는 얇으면서 자잘한 방식으로 세계의 도처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런 장소와 삶이 좋아서 무작정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도 늘었고, 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소소한 장소와 지역들까지 우리의 근처에 다가오게 되었다. 탈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지역들이 탈바꿈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사례들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입지적 조건을 목표로 계획된 상업 공간이 아니라면, 대개 각각의 장소는 그 고유의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다. 물리적 조건일수도 있고 문화적, 사회적, 인종적, 민족적 특성 등 다양한 성격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그 정체성을 드러낸다. 정체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모이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장소와 공간에 그대로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단 장소와 공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쌓인 것들 자체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지역예술이 무엇인가를 동시대적 관점으로 확장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만의 감성을 다듬어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삶과 예술이 다른 나라, 문화, 사람에게 강한 설득력을 갖는 것. 쿨하고 멋져 보이도록 하는 것. 지역예술의 재정립을 통해 감성의 세방화를 할 수는 없을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느끼는 감각과 삶을 이해하고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깊이 출발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DaeMun

축제의 시대, 세방화 시대

연극평론가, 전 구미대학교 교수 | **권 순 종**





하늘에서 본 분필아트 행사 장면

1. 컬러풀 페스티벌과 분필아트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5월이 되면 전국의 거의 모든 도시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관계없이축제를 개최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축제를 열고 여럿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데에는 도시의 크고 작음도 관계없고, 도시나 시골도 관계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히 축제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대구에서도 이 도시의 간판 축제 격인 '컬러풀대구 세계인축제2016' 이 열렸다. 주된 무대는 국채보상로 일대종각네거리~서성네거리였다. 이 행사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재)대구문화재단이 주관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틀 동안 축제 행사장에는 대구시민을 비롯해서 타 지역, 해외 교포, 외국인 등 연인원 70여 만 명이 참여했고, 중심행사인 퍼레이드에는 130개 팀, 7천3백여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2부 축제 한마당에도 2.28기념공원 곳곳에서 공연이나 연주회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되어 이곳을 찾은 세계시민들이 흥겹게 소통하는 장면이 노출되었다.

컬러풀 퍼레이드와 더불어 올해 대구시가 야심차게 기획한 행사는 '분필아트' 의 기네스 기록 도전



분필아트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이었다. 분필아트는 전문 작가들이 거리에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참가자들이 분필로 색을 채워 넣어 그림을 완성하는 '거리 예술'의 한 장르이다. 분필아트의 세계 기록은 면적과 참가 인원으로 구분되는데, 최대 면적은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18,598㎡2015년 8월 16일의 기록을, 최대 인원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가 5,391명2009년 9월 20일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대 면적에 도전했다.

대구시는 축제 첫날인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국채보상로의 종각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까지의 교통을 전면 차단하고 도로를 캔버스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조성된 캔버스는 폭 24m, 길이 850m, 면적 20,400㎡실제 면적은 19,800㎡가 되어 코펜하겐의 그것을 넘어섰다. 그림이 완성되면 대구시는 분필아트의 기네스 기록을 경신하게 되어 있었다. 대구시는 종이컵 크기의 분필 10만여 개를 특수 제작해 공급했고, 25,000여 명의 시민들이 그림 그리기에 참여했다. 참가 인원도 기존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남은 것은 공인 절차뿐이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온 기네스 본부 심사위원은 대구의 분필아트를 기네스 신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 대구시가 기네스 본부에 제출한 그림 도안과 실제 그려진 그림이 일부 달랐다는 게 이유였다. 참가자들이 밑그림을 무시하고 자기 이름을 적거나 낙서를 한 것들이 발견되었고, 아스팔트 노면에 색깔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거나 분필이 바람에 날려 흐려진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림의 선명도가 떨어져 형체를 분간하기 힘든 곳, 일부 구간에 물이 사용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대구시의 분필아트 기네스 기록 도전은 도전에 그치고 말았다. 이날 오후 5~6시 예정됐던 분필아트 세계 기네스 신기록 선포식 행사도 당연히 취소됐다. 기네스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결과였다.한겨레신문, 2016. 5. 8. 참조

2. 지역문화와 세방화(世方化)

세방화世方化를 의미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은 세계화世界化의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지방화地方化의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이 결합된 말이다. 그러므로 세방화glocal는 세계화global를 추구하면서 지방local의 특징을 살리자는 의미일 터이다.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거리에는 셰익스피어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세계화는 지구의 곳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규모나 형태가 세계적인 규모로 동일화된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정이 이럴 경우, 대도시에서는 세계화 현상이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경제적 · 문화적 수준에서 대도시를 따라잡기 난감한 지방도시나 시골에서는 세방화가 강 건너 불구경이나 진배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세방화는 지방 사람들Local의 의식, 문화, 행동양식을 세계적인 수준Global으로 높이기 위해 대도시 중심의 경제 및 문화활동을 지방에서 활동시켜야 가능해진다.

미국의 문화학자 마거릿 미드Margaret Mead, 1901~1978는 21세기를 '정체성과 동일성의 문화시대'로 정의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글로벌화하는 시대에는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지역 정체성이 한 민족, 한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고 한 바 있다. 결국, 세방화란 앞선 나라, 앞선 도시의 품격이나 문화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다움, 그 도시다움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가장 우리다운 것으로 세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 축제, 상품이어야 세계인들을 공감시킬 수 있고, 세계화된 시장 경제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페스티벌 극장은 에이번 강변에 자리하고 있다.

3. 성공한 도시에서 배우기

미국 오리건 주 남부 애슐랜드Ashland는 인구 2만 명에 불과한 조그만 도시이다. 이 도시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셰익스피어축제Oregon Shakespeare Festival 기간 동안 세계에서 38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한다. 이 도시의 세 곳에 있는 극장에서는 11개의 셰익스피어 작품과 현대 극작품이 공연되는데, 관광객들은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면서 극장에 가지 않더라고 리씨아공원Lithia Park에서 열리는 홍보 공연과 주말의 음악회에만 가도 애슐랜드 관광의 목적을 웬만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의 스트래트포드는 인구 4만 명에 지나지 않는 조그만 도시이지만, 해마다 개최되는 셰익스피어 축제 때문에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은 16개의 셰익스피어 작품이 네 개의 극장에서 750회나 공연된다. 4월부터 8개월 동안 약 60만 명이 연극을 관람하고, 연간 방문객이 18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평범하기만 했던 소도시 스트래트포드는 셰익스피어 축제 하나로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주민들이 문화적인 자부심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애슐랜드와 스트래트포드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셰익스피어 축제를 통해 세방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도시로 기억되고 있다.

눈을 국내로 돌려보자. 올해로 19회를 맞은 보령머드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글로벌육성 축제로 지정되었다.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들은 머드를 사용한 다양한 머드마사지와 머드체험행사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2015년 축제 때에는 총 3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보령을 찾았는데, 이 가운데 27만 명이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발표되었다.

안동시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하회마을, 봉정사 등의 역사적 유산을 지닌 도시이다. 그래서 안동 사람들은 안동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 부르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안동'이란 지명이 곧 고품격 브랜드가 된 까닭이다. 안동시는 안동문화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에 이름을 올려 안동문화의 다양성을 널리 알리면서 세방화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하회마을이 2010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유교문화를 상징하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그리고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봉정사까지 세계



제 1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해 세계역사도시와 어깨를 겨루며 안동문화의 세방화에 주력하고 있다.

4. 대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애슐랜드와 캐나다의 스트래트포드는 셰익스피어 축제로 세계인의 관심을 사로잡아 해마다 수십만 명의 발걸음을 끌어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시 브랜드로 삼고,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비교적 성공한 곳들이 여럿 있다. 국제영화제의 부산, 머드축제의 보령, 탈춤축제의 안동이 대표적인 도시이다. 이 도시들의 경우, 축제 이름만 들으면 동시에 그 도시 이름이 떠오를 정도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축제 하나가 그 도시의 브랜드가 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경우이다. 이 도시의 축제 때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몰려들어 그야말로 세방화의 전범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구를 대표할 만한 축제나 문화행사 브



하회별신굿탈놀이 한 장면



지난해 보령머드축제 공식개막 행사의 하나인 대한민국 공군에어쇼팀 '블랙이글스' 비행모습 / 아시아뉴스통신DB

랜드는 무엇일까? 글의 첫머리에서 논의한 컬러풀 페스티벌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그보다는 뮤지컬축제, 국제오페라축제, 치맥축제와 같은 행사가 오히려 낯이 익은 느낌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2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 대구의 대표 브랜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일이 최근에 일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지방 관광 콘텐즈 중에서 5개를 세방화 상품으로 선정했는데, 다행하게도 대구의 '진짜 즐기는, 진짜 대구여행' 이 선정되는 행운을 안았다. 이 밖에 부산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찾아 떠나는 서면메디컬 스트리트 메디뷰티 힐링여행', 강원도의 '헬로우 2018 평창', 경상남도의 '사랑의 설렘, 한류 웨딩 · 커플 여행', 전라남도의 '여수 밤바다' 가 포함되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16. 4. 22

대구시는 근대골목 · 약령시 등 근대역사문화 자원과 동성로,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등 도심 관광자원, 팔공산 · 갓바위 등 자연친화 자원, 컬러풀 페스티벌, 치맥 페스티벌 등 글로벌 축제자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 '진짜 즐기는, 진짜 대구여행' 1박 2일 코스를 알차게 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출발점은 마련된 셈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행사에 어떻게 색칠을 하여 곱게 분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컬러풀 대구' 의 이미지를 가꾸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대구와 대구의 문화행사를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행사에 이야기를 입히는 일이다. 흔히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구는 최근 들어 중구의 골목 투어, 낭만거리 김광석길 등을 개발하여 톡톡히 재미를 본 바 있다. 대구는 독립운동가 이야기, 문인 이야기, 중국 명나라 이야기 등 전국적인 관심을 촉발시킬 만한 소재가 널려 있는 도시이다. 조금 더 확장하면 왕건의 고려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 삼국유사와 일연스님 이야기도 있다. 여기에다 요즘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치맥 본산지 이야기, 뮤지컬과 오페라 이야기 등 스토리텔링의 소재는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다. 이젠 이야기를 개발하여 이야기와 행사를 연결하는 거멀쇠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에는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축제나 문화행사가 성공하기 위한 일차적인 요건은 사람이 모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거기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



이다. 재미는 행사를 보고 즐기는 데 그치는 소극적인 것도 있지만, 함께 참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것도 있다. 예로부터 우리의 공연문화는 무대와 객석이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므로 축제 현장에 오면 주행사장은 주행사장대로, 보조행사장은 보조행사장대로 다양한 무대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연예술도시란 도시 브랜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마련될 터이다. 이와 더불어 체험할 거리, 먹을거리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요컨대, 대구문화의 세방화를 위해서는 대구의 대표축제인 컬러풀대구페스티벌과 함께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공연예술도시로서의 품격과 명성에 걸맞은 무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구에서 세계로 나아가야 하고, 세계인들이 대구의 문화행사를 스스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DaeMun

대구 예술의 힘

음악 유럽에서 활동하는 대구출신 작곡가 이도훈과 장은호_이철우

영화 리얼리즘, 휴머니즘 그리고 이창동 감독_손영득

연극 연극인 故 박상근 선생님을 추억하며_박세희

유럽에서 활동하는 대구출신 작곡가 이도훈과 장은호

대구문화재단 이사, 계명대학교 작곡과 초빙교수 | **이 철 우**





폴란드 크라코프 국제 작곡가
페스티벌 야기엘로니엔 대학 음악연구소 특강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음악의 도시 대구의 음악 기초과정의 영재교육이 성과를 보여 대구영재교육원 출신인 박재홍[1]이 이화 경향 콩쿠르 대상, 클리블랜드 영 아티스트 국제콩쿠르의 대상을 비롯하여 독일의 에틀링엔 국제콩쿠르[2] 등 다양한 국제콩쿠르를 휩쓸며 성장하고 있으며, 문지수[3]는 즉흥연주로 프로코피에프 스타일 이상의 현대적인 자신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천재적인 음악성을 소유한 피아니스트로 아시아 태평양 쇼팽콩쿠르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콩쿠르에 입상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서 연주분야에서 세계적인 화려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구 클래식음악 교육의 성과로 창작음악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구 출신의 작곡가로서 유럽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두 작곡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한 사람이 현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활

1)성화중 졸업, 서울예고 재학. 이성원(계명대 교수), 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사사

2)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2000년에 대상을 타면서 국내에 일려진 세계적인 국제콩쿠르

3) 경북예고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이성원(계명대 교수), 세르게이 타라소프(러시아 피아니스트, 계명대 초빙교수), 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사사



대구시립교향악단 뉴 사운드 오브 대구 연주회

동하면서 '독일 한국음악제'를 통해 독일에 한국 작곡가들의 성과를 알리면서 음악을 통한 독일과 한국의 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도훈 감독이며, 그 다음은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곡가 장은호이다.

두 작곡가의 약력과 활동성과를 각각 소개한다.

1) 작곡가 이도훈*1979[4]은 대구 경북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2003년 도독하여 독일 칼스루에Karlsruhe 국립음대 볼프강 림Wolfgang Rihm 교수의 문하에서 디플롬과 최고과정Solistenexamen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서울대 음대 재학 중 중앙콩쿠르 1위, 동아콩쿠르 서양음악작곡부문 2위,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젊은 작곡가상 및 2000년 도쿄 국제 실내악 작곡콩쿠르에서 1위없는 2위에 입상하였고, 독일 유학 중 칼스루에 소재 바덴 주립극장Badisches Staatstheater의 현대음악 시리즈 'NachtKlänge'와 독일음악협회 주최의 'Musik Journalismus & Neue Musik'에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칼스루에 국립음대 졸업 후, 서울 세종 챔버홀에서 열린 Adrien Perruchon 타악기 독주회에서 'Narziss Fantasie'가 위촉, 초연 되었으며, 2011년에는 피아니스트 임수연의 서울 일신홀, 파리 한국 문화원, 프랑크푸르트 하우스 암 돔Haus am Dom in Frankfurt am Main에서 열린 독주회 투어에서 'approximate'가 연주되었다. 2012년에 오스트리아 Klangspuren Festival의 위촉으로 세계 초연된 5인의 주자를 위한 'Minifiction'이 독일 최대 일간지인 쥐트도이체짜이퉁Süddeutsche Zeitung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2013년 6월 독일 Ensemble Phorminx에 의해 클라리넷과 첼로를 위한 'Die unterbrochene Brücke'가 다름슈타트와 튀빙엔에서 개정초연 되었고, 대구국제현대음악제[5], 오스트리아의 쇤베르크 센터, 독일 Zepernick 현대음악제 'Randspiele'에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폴란드 크라코프 국제 작곡가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된 크라코프의 유서 깊은 야기엘로니엔 대학의 음악학 연구소에서 '전통에서 온 새로운 소리'라는 주제로 한국음악과 가야금의 현대적 주법에 대해 강연을 하는 등 유럽 전역은 물론 한국 내에서의 활동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대표적인

4) 대구에서는 안승태, 진규영, 이철우 교수를 사사하였다.

5) 소프라노, 클라리넷, 타악기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몽'이 세계초연 및 KBS에서 녹화중계 됨.



제3회 독일 한국음악제 포스터



2015년 독일 한국음악제 개막 연주후 – 프랑크푸르트

작품으로는 독주 피아노를 위한 'Minifiction VII', 현대음악 전문 피아니스트 Ortwin Stürmer가 위촉한 피아노 독주를 위한 '별이 빛나는 밤에', 소프라노, 클라리넷, 타악기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몽', 혼성 합창과 가야금을 위한 '수련 환상곡'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2020년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250 piano pieces for Beethoven' 위촉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피아니스트 Katharina Olivia Brand, 그리스 피아니스트 Despina Apostolou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과도 교류하고 있으며, 다름슈타트 일간지 Echo지를 비롯한 매체들에서 활동성과에 대한 호평을 얻고 있다.

작품 활동 외에도 2009년부터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며 활동을 하고 있는 이도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괴테대학교Johann Wolfgang Goethe – Universität 언어문화학부 강사로 활약하였고, 2013년부터는 한–독 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당시 총영사 한원중과 다름슈타트 음향예술아카데미Akademie für Tonkunst Darmstadt 주최로 시작된 독일 한국음악제Koreanisches Musikfest in Deutschland의 예술감독직을 맡아 한국의 작곡가와 연주가들을 독일 무대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음악제는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



는 공적인 장場이 외국에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는 아쉬움을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로서 세계 최고의 현대음악제가 열리는 도시 다름슈타트에서 시작되었으며, 2015년 제3회 음악제부터는 김영훈 총영사[6]의 도움으로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더 많은 독일 청중들과 독일 주류 음악계로 한 발자국 깊이 다가가는 음악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만남, 젊은 거장들의 무대, 한독교류연주회라는 세 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매년 작품 공모와 연주자 공모를 통해 새로운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작곡가들을 독일에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음악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서울대학교 작곡과 출신들로 구성된 SNUCE[SNU Composers in Europe]을 결성하여 유럽 각국에서 학업 중인 젊은 한국 작곡가들의 신작들을 프랑크푸르트, 파리, 비엔나에 소개하였고, 독일 내 작곡가들의 생가를 탐방하고 집필한 iPad App Book '유럽에서 온 음악편지' 를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하였다.

2) 작곡가 장은호*1983는 경북예술고등학교와 계명대학교 계명-쇼팽 음악원 학 · 석사 연계과정[7]을 졸업하였으며, 그 후 폴란드 바르샤바의 쇼팽 국립음악대학에서 작곡, 이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지도교수로는 한국에서 윤현국, 이철우, 즈비그뉴 루진스키[Zwigniew Rudzinski] 교수를 사사하였으며, 폴란드에서는 마르친 브와제비츠[Marcin Blazewicz], 에드바르드 시엘리츠키[Edward Sielicki], 미워쉬 벰비노프[Milosz Bembinow] 교수를 사사하였고, 국내외 워크숍을 통해 영향을 받은 중요한 작곡가들로는 진은숙, 차야 체르노빈[Chaya Czernowin], 브라이언 페르니호흐[Brian Ferneyhough], 베아트 푸러[Beat Furrer], 파비앙 레비[Fabien Lévy], 오스카 비앙키[Oscar Bianchi], 클레멘스 가덴슈테터[Clemens Gadenstätter] 등이 있다.

그는 특히 국제콩쿠르를 통해 자신의 이력을 화려하게 하였으며, 2011년부터 그는 폴란드 쇼팽 국립 음악대학에서 관현악법, 총보법 등 강의를 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활동영역을 넓

6) 대구광역시 국제관계대사를 역임하고 프랑크푸르트로 부임

7) 1996년도에 설립된 계명 · 쇼팽음악원은 계명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폴란드 국립쇼팽음악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학 · 석사 연계학위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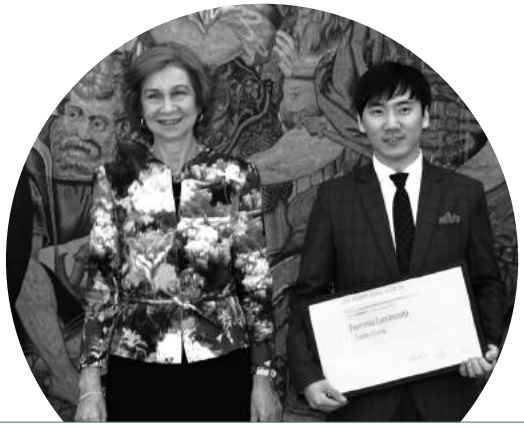
히고 있다.

2013년 최연소 작곡가로 스페인 여왕과 페레-살 음악협회가 주관하는 제30회 스페인 소피아 왕비 국제 작곡 콩쿠르[8] 30th Queen Sofia's Prize for Music Composition 에서 그의 작품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판타지아 루미노지테Fantasia Luminosit for violin solo and orchestra' 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스페인 주요 일간지 라 반구아디아에서 저명한 음악 평론가인 호세 아르테아가José Luis Pérez de Arteaga로부터 "서정적인 기교, 힘 있는 서사적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 작곡계에 알려졌다.

그 밖에도 그의 국내외콩쿠르 이력을 나열해 보면 그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008, 1위, The 2nd Ignacy Paderewski International Composition Competition for The

8) 스페인 여왕의 이름인 Sofia를 따서 만든 Queen Sofia's Prize for Music Composition은 1982년을 시작으로 The Ferrer-Salat Music Foundation주관하에 열리는 대회입니다. 매년 대규모의 오케스트라 편성의 작품을 공모하여 단 한 작품만 선정해 그 해 10월 스페인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국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마드리드에 있는 Teatro Monumental에서 초연이 되며, 스페인 여왕이 직접 우승자에게 상장과 상금 25000유로를 포상하고, 우승자에게는 다음 해 콩쿠르에 심사위원으로 초청이 된다. 대표적인 Queen Sofia's Prize for Music Composition 수상자로는 루토슬라브스키, 예수 토레스, 마시모 보테르 등이 있다.



Unification of 'The Four Elements for Piano solo', 폴란드

2009, 2위, The Fifth International Jurgenson Composition Competition for 'String Quartet no.1', 러시아

2009, 1위, Dong-A Music Competition for Composition part for 'Color for 9 instruments',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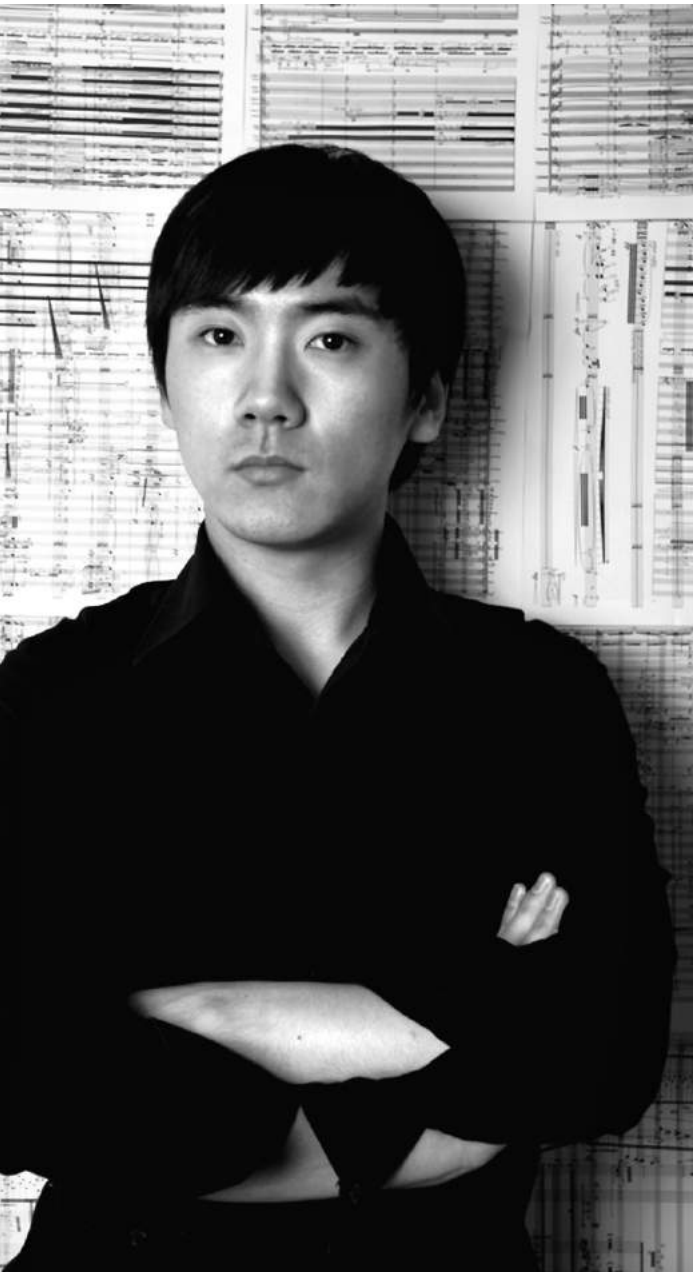
2011, 2위, 6th International Jurgenson Composition Competition for 'Festival for 6 percussions', 러시아

2011, 1위, Special prize(SACEM prize), Public prize Concours de composition pour ensemble de percussions VP 11 for 'Festival for 6 percussions', 프랑스

2011, 우승, International George ENESCU competition[9] for composition part in Symphony section for 'Symphony poem The Human', 루마니아

2011, 준결승, 75th International Queen Elisabeth Competition, 벨기에

9)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에네스쿠 국제 음악제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에네스쿠 국제 음악 콩쿠르는 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소속으로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콩쿠르는 음악제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이 중 작곡콩쿠르는 심포니형식과 챔버형식 등 두 개 부문으로 분리되어 있고, 우승작품은 다음 해 페스티벌에서 초연된다. 상금은 심포니 10,000유로 챔버 7,000유로이다.



2013, 결승전, 68th Geneva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for 'Gohok for Flute solo and ensemble', 스위스.

2015년에는 밀라노 엑스포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국제 음악 박람회에서 50인 작곡가에 선정, 미국 백악관 연주, 프랑스 로야몽 사원에서 주관하는 새로운 음성Voix Nouvelles Royaumont, 폴란드 바르샤바의 가을 현대음악 축제, 폴란드 문화 체육 관광부 등에서 위촉 및 초청 받았다. 2014년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생애 첫 작품 발표회"에 선정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프로폴로냐 장학금을 수여 받았다. 그의 작품은 국내 국외로 아르디티 콰르텟, 클랑포룸 빈, 앙상블 콩트레샴, 디베르티멘토 앙상블, 무지크 노블 등 많은 저명한 연주자들에 의해 연주 되었으며, 한국, 스페인, 미국, 스위스, 폴란드 국영 방송국에서 방영되었다. 그의 첫 음반 "산조 시리즈 1"이 레퀴엠 레코드Requiem Records와 둑스DUX에서 공동 발매 되었으며, 독일의 지몬 출판사Simon Verlag과 미국의 세종 문화회Sejong Cultural Society에서 그의 작품이 출판 되었다. 그 밖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좁은 지면에서 모두 나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음악성은 시적인 추상, 고혹적인 아시아적 아름다움, 복잡하게 얽힌 색조와 명암 등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자연의 소리를 다양한 음색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의 음악적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전통 음악에서 나오는 다양한 자연발생적 소리 음색, 패턴, 제스처 등을 가지고 현대적 기법으로 표현하는 것과 동양화에서 나타나는 선적인 미학에의 심취, 그 선적 미학의 자율성을 자유롭게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의 작품에서 핵심' 이라는 평들이 보편적인 그의 음악성과 작품들에 대한 평가이고, 그는 스스로도 자신의 작업 노트를 통해 "자연의 소리들이 서로 조화롭게 뭉쳐 복잡한 제2의 추상적 소리 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내 음악의 총체적 표현이다."라고 적고 있기도 하다. 실지로 그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한국화에서 나타나는 영감과, 기술, 미학적 측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및 서양 악기와 기술적 융합하는 작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는 6월2016의 제26회 대구 현대음악제에 폴란드 현대음악 단체 Ensemble Kwartludium과의 공동 작업으로 Suite "Metaphor" for Children2014를 발표할 예정이며, 7월부터 10월까지 Ensemble Kwartludium의 상임작곡가로 활동한다. 그리고 오는 가을에는 건반음악 CD 발매 및 기념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고, 2017년에 발표할 오케스트라를 위한 "대경관"등을 작곡 중이다.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이도훈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은호는 경북예고 출신들로서 대구 음악교육계의 큰 결실들이며, 서두에 소개한 영재들에 거는 기대감도 대구의 영재교육에서 기인한 것이다. 예술가를 키워내는 것이 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가장 빠르게 상승시키는 방법이며 지름길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다. 그런 면에서 대구의 기초예술교육의 강화는 더욱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 두 작곡가가 대구 작곡계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현대음악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작곡가 권은실, 박철하를 비롯한 대구의 작곡가들과 대구를 세계적인 현대음악의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하여 온 26년 역사의 대구국제현대음악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활동하고 있는 점이 또한 대구 작곡계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 DaeMun

리얼리즘, 휴머니즘 그리고 이창동 감독

계명문화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 | **손 영 득**

90년대 이후의 한국영화 문제작들이 수많은 캐릭터를 생산해냈지만 그 인물들 가운데 대다수는 그야말로 트렌드로 왔다가 트렌드를 타고 사라졌다. 그런데 유독 이창동의 인물들은 다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정확히 찍힌 주민등록증 하나씩 지갑 안에 넣고 우리 주위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_ 씨네 21 前편집장 조선희



1. 소년은 달린다.

다음은 지식채널e-소년은 달린다. 편에 소개된 이창동 감독의 얘기이다.

"4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이상주의 좌파였던 아버지 때문에 유년 시절을 굉장히 가난하게 보냈으며, 그의 어머니는 한복 삯바느질로 6남매를 키웠다. 늘 빈곤했으나 자존심과 명분에 관한 교육만큼은 철저했던 가풍은 자신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끼친다. 방학이면 안동의 할머니 집에서 머물며 자연의 풍경과 소리들을 만끽하며 지냈는데 이때의 경험으로 미적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그것이 훗날 영화감독으로서 끊임없이 느끼는 자학의 원천이 된다. 지적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었으며 남달리 작문 실력이 뛰어났던 그는, 편지를 잘 쓰는 걸로 동네에서 유명했다."

대구고 시절엔 문예반에 가입했고 백일장을 투어 돌듯이 돌며 상을 휩쓸던 문학 소년이었다. 삼수 끝에 1975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은 10살 많은 큰형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연극판에서 주로 활동했다고 한다. 비록 지방 극단이었으나, 그는 대구 지역에서는 연기를 잘 하는 배우로 소문났었다.

이창동은 경북대를 졸업하고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198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전리〉가 당선되어 소설가로 등단하였다. 소설가로 데뷔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었다고 하며, 이는 이후 2000년작 "박하사탕"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후 3편의 작품을 만들고 노무현정권 때 문화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퇴임 후 밀양과 시를 감독하였다.

2. 이웃집 막둥이

이창동 감독 영화는 리얼리즘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적인 방식이거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현실을 잘 반영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리얼리즘적이라는 말을 한다.

연출 방식에 대해 이동진 영화평론가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 현장에서 구체적인 연기 지시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에게서 어떻게 연기를 뽑아내시나요.

"연기를 연출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기본적으론 인간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내게 오만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미리 정답을 갖고서 배우를 끌고 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감독이 구체적으로 연기 지시를 하면 배우가 만들 수 있는 것을 한정 지을 위험성이 종종 생깁니다. 현장에선 사실 어디까지 배우에게 틀을 만들어주거나 열어줄 것인지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늘 헷갈리고 실수하죠."

– 다시 찍을 경우, 왜 다시 찍는지 설명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설명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

는 배우들이 그게 설명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웃음) 객관적인 연기 기준으로는 괜찮은데도 제가 아니라고 말하면 당황하겠죠. 내가 대는 이유가 모호하고 분명치 않으니까. 목소리가 너무 높다든지 포즈가 너무 길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느낌으로 이야기하니 당황스럽겠죠." https://namu.wiki

초록물고기는 이창동 감독의 데뷔작이다. 빠른 도시의 확장을 거치는 서울 변두리일산에서 생활하는 주인공 막둥이는 군복무를 마치고 가족 곁으로 온다. 하지만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고 그래서 예전과 같이 모두들 모여 살기를 원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바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박한 꿈이지만 그 소박한 꿈조차 이루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막둥이를 통해 보여주는 작품이다.

막둥이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년이다. 오늘날에도 취업 때문에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젊은 청춘들이 바로 막둥이가 아닐까?

3. 박하사탕과 밀양 그리고 시

두 번째 영화 "박하사탕"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사회문제를 다룬다. 이 작품을 보면서 필자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캐릭터 '김영호'를 악인이지만 연민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내었다. 김영호는 "5 · 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공수부대 신병으로 민주투사가 아니라 반대편에 선 인물이다. 그리고 고문을 자행하는 정보과 수사관으로 직업을 택하게 되는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보면 철저히 군사정권 편에 선 인물이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한낱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 캐릭터를 만들어 내었다.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치는 '김영호'의 목소리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우리사회에 모순덩어리면서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하는 빨갱이 아니면 극우꼴통이라는 등식을 가감하게 영화를 통해 깨버리는 영화가 바로 박하사탕이다. 그래서 이창동 감독은 휴머니즘적 리얼리스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칸영화제에서 전도연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긴 "밀양"은 지독한 영화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그 느낌을 영화적으로 표현한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나요."라는 유명한 대사를 한다. 신과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이창동 감독의 최근작 "시"는 죽음에서 시작된다. 한강 변두리 작은 도시쯤으로 여겨지는 곳을 배경으로 한다. 참 일상적이다. 그냥 대도시를 약간만 벗어나 작은 도시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벤치에 앉아있다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영화에서 주인공 미자의 안식처인 공동주택에서의 일상은 참 한가롭다. 더운 여름 동네 앞에 펼쳐지는 흔하디 흔한 풍경이다. 아마 그 사건자신의 손자가 성폭행범이 된만 없었다면 미자윤정희분는 어렵지만 손자를 돌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머니다.

인간군상은 이전의 작품보다는 더욱 많이 그려진다. 시를 배우기 위한 동호인 모임, 가해자의 부모인 남성 집단, 간병으로 돌보는 회장님 등 많은 군상을 가져왔다.

한 소녀의 죽음에서 시작된 영화에서 미자를 제외하고는 연민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미자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관객은 알고 있다. 답답함이 밀려오지만 죽음보다는 "시"란 무엇인가를 미자는 더 의문을 가지고 갈구한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마지막 시를 쓴다. 직접적 가해자는 아니지만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상황은 영화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인정하기 힘들 것이다. 손자를 구할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그녀의 행동은 영화적으로는 처절하게 보여도 도덕적으로는 지탄 받을 수 있다.

그녀가 남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죽은 소녀와 동일화되어 쓴 "시"가 마지막 장면에 나온다.

아네스의 노래 중

그곳은 얼마나 적막할까요.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좋아하는 음악 들려올까요.

– 중략 –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햇빛 맑은 아침
다시 깨어나 부신 눈으로
머리맡에 선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한 소녀의 죽음과 시는 과연 무슨 관계일까? 영화에서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미자는 치매로 인해 단어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소녀와 대화하고 사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 한편을 남긴다.

거장이라는 칭호에 대해 아마도 이창동 감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소설가에서 영화감독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에게 아직 멈춤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아 보인다.

독립영화에 대한 애정도 각별한 이창동 감독은 대구독립영화전용관이 만들어질 때 지지 인사말을 해주기도 했다. 이창동 감독은 후배 감독들에게 모범이 되는 감독이며 또한 독립영화감독들의 롤 모델이기도 하다.

한국 독립영화계가 힘들지만 이런 선배 감독이 있음으로 해서 후배 감독들은 뭔가 꿈틀거림을 느낄 수 있고 같은 시대를 살며 영화를 만든다는 기쁨을 느낀다. DaeMun





연극인 故 박상근 선생님을 추억하며

전 극단 대구무대 대표 | **박 세 희**



故 박상근 선생님
1941. 4. 3 경북 포항 출생
1960. 2 포항고등학교 졸업
1960. 3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입학
1965. 2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졸업
대구 영신고등학교, 신명여중을 거쳐 1973년 부터 대구 남산여자고등학교(지금의 남산고) 국어과 교사로 재직
1995 금복문화상 수상
1998 대구시 문화상 수상
한국연극협회 경북지부장, 대구시지부장, 전국연극인협의회장등을 역임

굉장히 촉박한 시간을 두고 선생님에 관한 글을 써 주시면 안 되냐는 전화 한통은 정말이지 당황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을 안겨주었다.

한편으로, 대구에서 연극을 수십 년 한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선생님에 대해 글 한줄 써주실 분이 그렇게도 안 계셔서 나한테까지 연락이 온 것인가 하는 서운함에 맘이 상해서 온전히 대답도 못해드리고 혼자서 끙끙대다가 생각을 고쳐먹게 된 것은 이것 역시 선생님께서 자신에 대한 자랑 한 줄 남기시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가족이면서 어찌 보면 가장 가깝다 할 수 있는 극단의 직계 후배인 나 또한 선생님의 흔적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힘드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속상한 마음을 진정 시키니 괜히 헛웃음이 나왔다. 기억이라는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이 대구예술과 대구연극에 어떠한 영향력을 펼치셨으며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던가를 나열하기엔 턱없이 부족함을 다른 이들도 느꼈을테니 말이다.

가끔 왜 선생님은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교편도 잡고 계셨으면서 대구연극사와 자신에 대한 책 한 권 남기지 않으셨나 하는 원망도 했었다. 특히 5년전 쯤 2011년에 선생님의 10주기 추모공연을 진행하던 당시에는 그런 원망이 절정에 달했었다.

개인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으셨던 선생님..... 늘 무대에서, 현장에서 연극판의 공기와 함께 호흡하셨던 선생님을 기억해보면 이젠 너무 희미할 대로 희미해져서 지금 내가 끄적이고 있는 글들이 혹시 왜곡된 것은 아닌지 좀 겁이 나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로 선생님이 떠나신지 1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금 현장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故박상근 선생님은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그냥 전설 같은.. '네, 뭐 그런 분이 계셨겠죠.'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버릴 그런 이름 석자일수도 있겠다. 그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선생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져가는 것!

박상근 선생님은 1941년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부농의 집안에 8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나셨다. 내가 어릴 적 듣기엔 더 많은 형제자매가 있었으나 그 옛날 그러했듯이 병으로 몇 분은 돌아가신 것으로 들었다.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마을 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 영일만을 바라보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셨다고 한다.

2011년 추모공연 당시 김삼일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추모공연 기념사에 다음과 같이 서술 되어있다. 그 옛날 선생님께서는 포항동부초등학교, 포항중학교, 포항고등학교까지 줄곧 반에서 1,2등을 한 수재였다고 한다. 명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김삼일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신지를 빼닮은 외모로 고교시절부터 배우의 꿈을 키우셨고 마침 고3때 문을 연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진학 하려고 했으나 부잣집과 양반 가문에서 광대는 안 된다는 벽에 부딪혀 하는 수없이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 교육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선생님은 입학과 동시에 대학 연극반에 들어가 공부와 연기자의 꿈을 함께 키워나갔다. 박상근 선생님은 대학에서 영문학자인 김홍곤극작가, 영문학자교수의 영향을 받아 세익스피어 작품을 탐독, '햄릿', '오셀로' 역에 한없는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마침 1960년대 초 한국연극협회 경북지부가 주관한 경주신라문화제 연극공연에 적극 참여하면서 대구 기성연극계에 발을 들여 놓으셨고 그때부터 대구연극의 큰 기둥으로써의 자질을 키워 나가셨다고 한다. 이때 실험소극장의 대표이며 저명한 명연출가 하병천 선생을 만나 정통 리얼리즘 연극을 더욱 투철하게 터득하면서 대구연극의 큰 별로 점



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고 한다. 박상근 선생님은 연출과 연기를 겸비한 연극인이었으나 어디까지나 배우의 길에 더 비중을 두었고 연극을 통해 대구 경북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연극운동을 전개하셨다.

이때 김삼일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추모 기념글은 나 역시 선생님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소중한 글이었다.

내가 연극을 시작한 스무 살 이전의 선생님은 여느 가정에 위치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것이었다. 내가 연극의 길 위에 선 그 다음부터 난 연극계의 큰 선배인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전의 원망과 오해가 한꺼번에 풀릴 수 있었다. 그리고 연극이라는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외롭게 어깨를 구부리고 걸어가시던 그 모습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때 내가 흘렸던 눈물과 그 눈물을 알면서도 외면하시던 선생님의 뒷모습을...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기에 자꾸만 가슴이 울컥해 지는 건 이 순간에도 어쩔 도리가 없다. 세월이 지나 불혹을 넘긴지도 한참인데 '아빠' 라고 불러보고 싶어진다. 너무 오랫동안 불러보지 못했다. 참 매정하게 가셨다. 쓸데없는 상상이지만 연극계에 아직도 선생님이 계신다면 어땠을까 하고 잠시 생각해본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선생님은 1960년 유치진선생의 '왜 싸워' 라는 작품으로 연극계에 데뷔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공연연습을 하실 정도로 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외골수라고 불릴 만큼 연극에 대한 고집과 열정을 버리지 않으셨던 분이셨다. 늘 행동하는 모습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시던 분이다.

선생님은 연극을 만드는 연극인이셨으나 연극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연극을 보러오는 관객을 늘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다.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노... 다시!' 진실된 무대를 향한 고집과 집념은 때로는 답답하기까지 했었지만 그러한 밑거름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구 연극현장의 모습은 지금과 같은 발전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다.

그런 독불장군 같은 뚝심으로 관객을 속이지 않는 진정성이 있는 무대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40여년간 150여 편의 작품에 연출과 배우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셨다.

다시 한 번 김삼일 선생님의 10주기 추모기념사에 따르면 선생님은 경북사대를 졸업하고 고등학



교에서 평범한 교사를 하면서 얻어지는 월급을 연극공연에 마구 써버리는 등 연극에 전생애를 걸었다.이는 내 어릴 적 가정의 갈등의 큰 원인이었음으로 기억된다 부유하고 양반정신이 묻어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박상근 선생은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평생 동안 연극을 이용해서 어떤 자리나 사복을 채우려는 생각을 가장 싫어했다. 직선적인 성격으로 잘못된 것은 목소리를 높여 동료나 후배들을 질책했다. 박상근 선생은 가난한 연극인들을 위해 대구시립극단의 창단 준비위원회의 주역으로 대구시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극단 설립 필요성을 역설해 성사시켰으며 전국연극인 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을 때는 목이 쉬어 말이 나오지 않는데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그때 이미 몸이 쇠잔해져 결국 별세했다고 되어있다.

김삼일 선생님도 언급하셨듯이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시던 선생님은 집으로 가져오셔야할 월급의 대부분을 연극하는데 쓰셨고 내 어릴 적 기억엔 어머니와 아버지의 큰 소리 대화의 대부분은 그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잘 알지만 말이다.

하지만 언제나 예술을 하는, 연극하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옆에서 묵묵히 지켜내신 어머니를 보면 대구연극의 힘은 연극인보다는 그 연극인들의 가족들의 힘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언젠가 선생님이 교직에 계실 때지금의 남산고등학교 학교 학생들이 집으로 취재를 나온 적이 있다. 대부분의 얘기가 연극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난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선생질은 다시 안 하겠지만 연극은 꼭 다시 할 것이다.' 학교 선생님을 취재 나온 학생들에게 너무 파격적인 선언이었지만 그때 당시 학생들은 왠지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2000년 돌아가시기 1년 전 선생님의 회갑 기념공연을 할 당시 선생님은 '공룡의 발자국을 찾아서' 라는 작품을 연출 하셨다. 이때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난 내 회갑공연을 연출 말고 배우로 무대에 서고 싶었는데... 아! 그게 안되네....' 라고. 참으로 배우이고 싶으셨던 분이셨다. 그래서 다시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어쩌면 아주 상투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어색할 듯하다. '아! 선생님은 정말 무대를 사랑하시는 구나.'

선생님 경력에 그 많은 세월동안 한국연극협회 대구지부장, 대구시지부장, 전국연극인협의회장 등등 수많은 직책이 자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1969년 20대 후반에 제5대 경북연극협회장으로 취임하셨다고 한다.대구연극史, 최현묵, 참고 선생님에게 좀 더 높은 자리와 선생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을 텐데 선생님이 돌아오시는 곳은 늘 연극현장, 무대 그 곳이었다. 거기서 후배들과 기울이는 술한잔과, 너털웃음... 그리고 그 현장에서 뿌려지는 무수한 땀과 열정! 이것이야 말로 대구예술의 힘이 아닐까.

이러한 선생님의 연극정신이 이 시간에도 좋은 무대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대구의 많은 연극인들에게 한 번 더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래본다. 평소 선생님의 소신이셨던 진정성!!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옛날에 문화상 수상 1998.10당시 스크랩 해놓으신 얼마 안 되는 자료 중 30년 전에 전국연극인 일동으로 선언하신 선언문이 있어 일부분을 올려본다. 지금의 연극인예술인들도 여전히 참고해야 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예술은 존재해야 하며 알파고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들이닥칠 때 예술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선 언 문

역동과 신념의 예술, 갈등과 화해의 예술, 충격과 카타르시스의 예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예술로서의 창조적 연극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연극예술은 방황하는 인류, 대립하는 세계, 진실은 배제된 채 기형적 발전만 거듭하는 산업사회의 미로에 영혼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생명의 구원을 일깨워 주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연극예술이 시대와 계층과 이념을 초월해서 언제나 뿌리 깊은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는 명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연극예술은 야생마처럼 힘차게 평원을 달려가는 현실적 모습이 아니고 한정된 지역에서 연약한 꽃잎을 먹고 살아가는 환상적 모습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 등 일류문화사를 검토하고, 변천하는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여 파악하여야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요하고도 급박한 몇 가지를 제시하고 개선하여 이후의 연극예술을 미래의 후손들이 흠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장엄한 예술로 발전시키는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연극예술은 연극인 자신의 노력과 능력, 예술적 상상력과 학문적 천착에서 솟아나오는 것인 만큼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중 략)

연극은 문화예술 활동의 주역이다. 연극은 한갓 어릿광대가 제공하는 오락만은 아니다. 연극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왔고 미래에도 인류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근원적 예술이다. 따라서 연극은 그 순수성을 지켜가는 자존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 순수한 독자성 속에 대중을 오도하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 따위의 저급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결단코 배제해야 할 것이다.(이하생략)

1986년 8월 22일

전국연극인 일동

DaeMun

故박상근 선생님 공연연보

1960. 08 왜 싸워 (유치진 작, 조용철 연출)
1960. 10 붉은 손들 가운데서 (이광재 작 전옥주 연출)
1961. 12 귀중한 한표 (김찬 작, 김호 연출)
1962. 05 지평선 넘어 (유진오닐 작, 김홍곤 연출)
1963. 05 마의태자 (김찬호 각색,조용철 연출)
1964. 10 석 학 (가노시다준지 작 ,김홍곤 연출)
1965. 01 유리동물원 (테니스윌리엄 작, 하병천 연출)
1965. 05 십자의 표지가 있는 곳 (유진오닐 작, 박상근 연출)
1967. 05 임금놀이 (윤대성 작, 하병천 연출)
1968. 05 실과 바늘과 악장 (이근삼 작, 하병천 연출)
1969. 11 불모지 (차범석 작, 박상근 연출)
1969. 12 웨딩드레스 (오태석 작, 김구점 연출)
1970. 11 환상방황 (오혜령 작, 박상근 연출)
1971. 05 아가씨 길들이기 (몰리에르 작, 박상근 연출)
1971. 10 원고지 (이근삼 작, 박상근 연출)
1971. 11 오셀로 (세익스피어 작, 아성 연출)
1972. 07 물꼬 (천승세 작, 윤우림 연출)
1972. 11 시집가는 날 (오영진 작, 아성 연출)
1972. 12 혈맥 (김영수 작, 김천봉 연출)
1973. 12 사하린스크의 하늘과 땅 (윤대성 작, 박상근 연출)
1974. 12 불신시대 (황유철 작, 김천봉 연출)
1975. 09 시집가는 날 (오영진 작, 박상근 연출)
1976. 05 수전노 (몰리에르 작, 아성 연출)
1977. 12 혈맥 (김영수 작, 김천봉 연출)
1988. 09 제9회 노동문화제 참가
1989. 03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바스콘셀로스 작, 서영우연출)
1989. 08 쥐덫 (아가사크리스티 작, 박상근 연출)
1990. 03 신화1900 (윤대성 작, 박상근 연출)
1990–1995 전국청소년 연극축전 6회연속 참가
1990. 09 말괄량이 길들이기 (세익스피어 작, 이한섭 연출)
1991. 08 블랙코메디 (몰리에르 작, 이상원 연출)
1991. 10 몰래한 사랑 (원작 보잉보잉, 박상근 연출)
1992. 10 삐젤브에서 오셨나요 (원명 검찰관)
1993. 02 우리집 식구는 아무도 못말려
(모스하르 작, 박봉서 연출)
1993. 05 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스 작, 정진수 연출)
1995. 11 뜨거운 땅 (최현묵 작, 이상원 연출)
1995. 12 쥐덫 (아가사크리스티 작, 박상근 연출)
1997. 03 작은할머니 (엄인희 작, 서영우 연출)
1997. 08 열 개의 인디언 인형 (아가사크리스티 작, 박상근 연출)
1997. 10 악극 비내리는 고모령 (최현묵 작, 박상근, 이국희 연출)
1998. 06 따라지의 향연 (스칼페타 작, 김삼일 연출)
1998. 10 악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임선규 작, 장진호 연출)
1999. 03 목소리 (윤대성 작, 박상근 연출)
1999. 09 화개장터 (송연근, 김경화 작, 현태영, 강남진 연출)
1999. 10 감사관 〈검찰관〉 (리콜라이고골 작, 김삼일 연출)
1999. 12 늙은 도둑들의 이야기 (이상우 작, 박팔영 연출)
2000. 07 공룡의 발자국을 찾아서
(회갑기념공연,이근삼 작, 박상근 연출)
2001. 06 김치국씨 환장하다 (장소현 작, 박상근 연출)

문화비평

음악 함께 나누며 만들어가는 사랑의 돋움 음악회_이희주
미술 유리상자 – 아트스타가 거쳐 온 지난 10년_윤규홍
영화 대구와 영화가 만난... 그 아스라한 기억에 관한 영화_남태우
뮤지컬 10살 딤프의 성과와 과제_최원준
무용 대구시립무용단 History & Vision_김예림

MUSIC

함께 나누며 만들어가는 사랑의 돋움 음악회

작곡가, 월간음악저널 저널리스트 | **이 희 주**



돋움 공동체 대표 이상만

"조명은 좀 어둡게 하고 무대 주위에 향초를 여러 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바닥은 뭔가를 깔아야 할 것 같아요. 검은 천으로 덮으면 좋겠어요. 음향은 지금보다 조금 컸으면 좋겠는데요."

2016년 5월 26일 오후. 저녁 8시에 있을 사단법인 퀄리라이프 부설 돋움공동체 좋은 공연연구소가 주관하는 「양성필 대금 독주회-필류必流」리허설로 공간울림의 작은 공연장은 분주하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연주자들은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공연 준비를 위해 꼼꼼히 자리를 체크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불편이 있거나, 소외가 있거나, 약자가 있거나 하는 곳에는 어떠한 재능이든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흔쾌히 기부도 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는 아니더라도 이 돋움음악회만은 저의 재능을 아끼려 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인들도 재능을 함께 나누는 것에 동참하고 있고요. 이 돋움음악회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지고 있고 또 계속되어져야 하는 음악회이니까요. 또, 이상만 선생님의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 나가자는 신념에 그 힘을 실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번 공연의 주인공인 대금주자 양성필씨는 돋움음악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였다.



2005년 8월 바다 나들이

돋움공동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정성이 모여 이루어지고 있는 마음이 따사로워지는 공연이 있다.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공연이 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서로 한곳을 보며 함께 호흡하고 느끼며 생각하게 하는 열린 공연이 있다. 바로 사단법인 퀄리라이프 부설 돋움공동체대표 : 이상만가 주최하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정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 이다. 최근에야 사회복지에 대한 눈을 돌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이들을 돕고자 하는 보조인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눈은 그들을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범주에 넣어 버리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 사실, 장애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의 선을 그어버리고 그들을 잊고 있는 것이다. 장애를 문제 삼지 않는 세상,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과 차별이 없는 완전한 공존의 아름다운 세상, 이런 살맛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곡가 이상만을 중심으로 돋움공동체가 꿈을 펼치고 있다.

발달장애는 정신이나 신체적인 발달에서 나이만큼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신지체, 뇌성마비,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다양한 유전 장애와 염색체 이상, 레트 증후군, 전반적 발달장애 등이 모두 발달장애에 포함된다. 발달장애는 손상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기술, 일상생활의 활동과 흥미가 제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개별-그룹-통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부모와의 애착 발달, 사회적 상호 작용 촉진을 위한 행동, 놀이치료, 사회기술 훈련과 인지 학습, 언어적 도움 등의 다양한 측면의 통합적 치료가 필요하다. 자신의 아이가 그러했기에, 그 아이로 인해 자신과 아이와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 보았기에, 숨어있는 이들의 고통을 잘 알고 그들을 위한 제도와 도움을 위한 마음들이 모아져야 함을 절실히 필요로 했기에 이상만은 돋움공동



2016년 5월 나들이와 운동회

체를 만들었고,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 밝은 몸짓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천사들 나들이

사회와 격리되어 보호자 없이는 한 발짝도 외출 할 수 없는 발달 장애인들과 비장애 청소년들을 한명씩 짝지어 동행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는 나들이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앞으로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장애인들을 편견이나 거부감 없이 바라보게 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 장애인 천사들에게는 귀한 바깥 공기와 풍경을 즐기게 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며, 서로에게 귀한 경험과 지혜를 제공하게 하는 이벤트이다. 2003년부터 시작하여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청소년들과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의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함께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과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마음으로 나누는 따사로움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양성필 대금독주회 연주회 장면

돋움음악회

돋움음악회는 자폐로 대표되는 발달장애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편견과 몰이해, 무관심을 걷어내기 위해 개최하는 음악회로 1997년 5월에 첫 연주회를 가졌고, 이후 많은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음악회이다. 하지만, 지금의 돋움음악회가 있기까지 쉽지는 않았다. 음악회를 통해 발달장애의 문제를 알리고자 대구지역 음악인들에 의해 조용히 시작된 이 음악회는 2년 후 중단되고 말았다. 음악회는 무료였고 음악가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었지만 최소의 비용조차도 감당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03년부터 다시 대구에서 부활하였고, 2005년부터는 지역을 넓히고자 서울에서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돋움음악회는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고, 소외된 복지시설이나 집단 생활시설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음악과 무용, 마임 등 다양한 공연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돋움음악회는 후불제 공연으로 관람료는 공연관람 후 보고 느낀 만큼의 감동을 지불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1회 공연으로 생기는 수익은 변변치 않다. 연주회 리플렛을 제작할 정도의 수익이라도 감사하다. 연주자들의 출연료는 지불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음악인이 자처하여 돋움음악회와 함께 하기를 고대하고 있고, 돋움음악회의 스펙트럼은 조금씩 주위로 번져서 출연 단골 연주자들이 생길 정도이다.

「첼리스트 박경숙의 봄과 꿈 이야기」, 「Viva Trio 가족 이웃 콘서트」, 「작곡가 이영수의 Synthesizer Recital」, 「가수 임지훈 초청 콘서트」, 「오리엔탈익스프레스 공연」, 「아름다운 무리가 부르는 그저 마냥 좋은 노래」, 「피아니스트 이은영 & 이준성 초청 연주회」, 「안호진 Jazz Quartet 연주회」, 「최훈락과 친구들-가을에서 겨울로」, 「리코더 앙상블 가온누리 새해맞이 콘서트」, 「플루트 앙상블 칼로스 초청연주회」, 「양성필 대금 독주회-필류必流」등 수많은 음악인들이 돋움음악회를 거쳤다. 그리고, 이 중에는 돋움음악회 시작 이래, 여러 회 공연을 가진 음악인들도 있을 정도이다. 이들은 왜 이 음악회를 위해 공연을 자처할까? 아마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들이 서로와 서로



가온누리 새해맞이 콘서트

에게 전해짐으로써 그 뜻을 함께 실천해 나가려는 힘과 용기들이 모아졌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돋움음악회는 지역의 기금이나 시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지역에서 공모하는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지속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이다 하더라고 가시적인 결과만으로 그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 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지역 기관에서는 일반인들의 장애인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조금 더 확대 할 필요가 있고, 가시적인 결과보다는 사업의 진정성과 가치판단에 따른 새로운 잣대로 사업수행능력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열어둔다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그리고 예술인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기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돋움공동체에서도 조직을 잘 정비하여 행정실무와 행사 실행에 따른 인력 충원이 요구되고, 후원금만으로 진행되는 음악회를 좀 더 확대 진행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돋움음악회는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는 음악회이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이들에게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어려움,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방안 마련을 나누고자 하는 필자의 욕심에 몇 가지 생각을 덧붙여 본 것이다.

사단법인 퀄리라이프 부설 돋움공동체 대표 이상만은 아름다운 사랑의 꿈이 있다.

"돋움음악회는 1997년 이후, 약 5년 정도의 재정비 기간을 거친 후 2003년 6월부터 다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월 1회 이상의 음악회 및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9월부터 월 1회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 장애인들의 나들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의 불모지대라 할 수 있는 시설현장에서 공연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지요. 돋움공동체가 꿈꾸는 것은 바로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과 차별이 없는 완전한 공존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일이 개별 가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정의 현실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겨운 일이지요. 발달장애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장애가 가족 전체에게 정서적, 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통이 심하게 증대되어 결국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물론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

돋움 공동체 문의 : 010-6393-1255, http://cafe.daum.net/Dodum
후원 계좌번호 : 대구은행 055-07-014287-6 돋움음악회(이상만)

와 사회적 장치가 매우 절박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한데 모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서로의 정보와 노력을 공유하는 제도와 사업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현실이지요. 법인 설립 후 가장 먼저 할 일로 여기고 있는 발달장애아의 공동육아 및 양육사업, 장애인과 그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다양한 복지 증진사업,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를 따지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의 손을 내밀어 잡고 함께 소통하며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열린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등을 통해 그 큰 꿈을 이룰 것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쉼 없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돋움공동체의 크고 아름다운 꿈에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 가볍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돋움음악회는 뜻있는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많은 후원자 여러분들의 귀한 성금, 그리고 공간 울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DaeMun



플루트 앙상블 칼로스 초청연주회 포스터

ART

유리상자 – 아트스타가 거쳐온 지난 10년

갤러리 분도 아트디렉터 | **윤 규 홍**



2015 유리상자ver.1 최선



2014 유리상자ver.1 로미아키투브

사람들에게 유리상자를 아느냐고 묻는다면, 대구 봉산문화회관 2층에 있는 특별전시관이라고 대답하는 이는 몇 명 안 될 것 같다. 그 대신에 다들 포크 발라드를 하는 듀오 이야기를 할 것이다. 나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유리상자가 부른 노래들 가운데 크게 좋아하는 곡이 없다. 뭐, 취향 탓이니까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 아무튼 나는 유리상자라면 이제 미술전시 장소 혹은 프로그램을 먼저 떠올린다. 이 두 유리상자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 느낌 속에, 음악 듀엣 유리상자는 부드럽고 천진한데 전시 장소인 유리상자는 냉정하고 가차 없는 면이 두드러진다. 왜 그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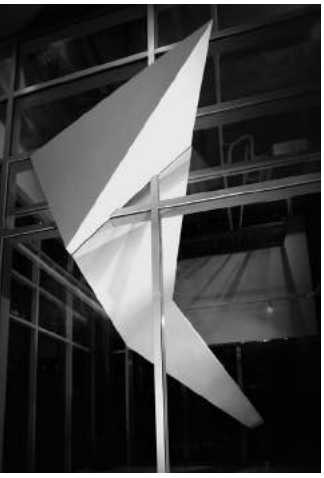
올해 초 유리상자는 10주년을 맞아서 중견 작가 이지현의 〈dreaming book – 바다〉를 특별전 형식으로 선보였다. 이런 전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곳은 늘 한결 같다. 지난 10년간 이곳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정식 이름은 유리상자–아트스타, 장소를 먼저 밝히고 아트스타라는 주어가 뒤에 따라 붙은 곳. 장소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고, 숱한 작가들이 여기를 거쳐 지나갔다. 젊은 현대 미술가들은 이곳을 해방구처럼 여겼다. 또 더러는 일종의 관문으로 받아들였다. 또 시민들에게 이 장소는 밑도 끝도 없는 현대예술도 한 5분쯤은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

는 스펙터클이었다. 유리상자라는 해방구는, 관문은, 스펙터클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공간과는 달랐다. 표현이 이상할지도 모르겠는데, 유리상자–아트스타는 그 무엇과 비교하더라도 노골적일만큼 지금의 미술 그 자체였다.

대략 1990년대 접어들면서 일은 벌어졌다.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을 따지거나 간에 문화 환경은 굳이 정보화와 세계화, 혼융화가 들이닥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미술에서 그것은 비엔날레의 시작이었다. 서울 올림픽을 치른 이후 붙은 자신감은 한국에서, 그 중에서도 미술에서 국제 미술행사를 하나둘씩 띄어 나가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 비엔날레는 한국 미술을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다. 이전의 미술이 전람회였다면, 이후는 이벤트가 되었다. 이전의 아방가르드적인 운동 또한 몇몇 사람과 장소가 합쳐진 선언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미술의 최전선은 프로그램을 계측하고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아카이브가 이끌고 있다. 현대미술은 감상에서 체험으로 이행되고 있다.

2007년에 모습을 드러낸 〈유리상자–아트스타〉는 매 전시를 하나의 이벤트처럼 꾸몄다. 이 공간은 2층과 3층의 세 전시실이 있는 이유로 원래는 문화회관의 아트상품가게로 꾸며질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바뀐 쓰임새는 이 장소를 특별한 곳으로 만들었다. 지자체로부터 내려온 결정은 거기까지였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예술행정의 원칙이 온전히 통하는 곳이 잘 없는데, 이곳이 그런 곳이다. 사방이 유리로 쌓인 전시공간이 이 세상에서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난 못 가봤는데, 미국 시애틀에 글라스박스 갤러리가 유명세를 타고 있다. 물적인 특성만큼 투명한 절차로서, 유리상자는 모든 작가를 공개모집 식으로 뽑아 왔다. 그리고 대구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코디네이터 개념은 스태프를 전시 작가와 더불어 내세우며 기획의 색을 달리 했다. 유리상자는 전체 프로그램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종구 전시팀장 및 필자들이 비평한 텍스트를 일관된 형식으로 발행하면서 아카이브를 쌓아오고 있다. 색다른 협업 과정과 시민참여과정은 생산자와 매개자 그리고 수용자 모두에게 새로운 체험이 되고 있다.

2016년 5월을 기준 시점으로, 지금까지 모두 56건의 전시를 거듭한 유리상자는 이것이 남긴 공식적인 기록이 글 뒷부분에 붙은 전시 기록을 참조할 것을 분석한다면 꽤 흥미로운 여러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누구나 가능한 고찰을 통해서 내가 논



2014 유리상자ver.3 박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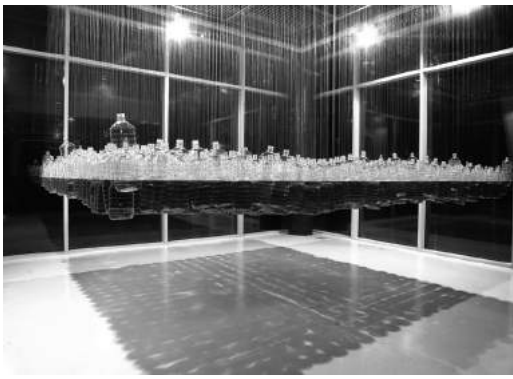
증할 수 있는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작가의 연령 파악이다. 상당수의 작가들이 20대 중후반에 본격적인 창작과 전시를 통해 신분을 획득하기 마련인데, 유리상자–아트스타에 선정된 작가들은 최소 10년 안에 경력을 가진 젊은 미술가들이 많다. 그런데 이 연령대는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왜일까? 이곳의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리상자 전시가 처음에는 '어린 작가 애들이나 하는' 이벤트로 인식되다가 차츰 공간 해석에 관한 관심이 퍼져가고 있다.

두 번째 경향도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바로 대구권역 이외 지역 작가들의 전시 빈도가 커진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시 성사보다 공모에 지원한 작가들의 출신/활동 지역 비율의 변화 추세를 따지면 더 분명해진다. 앞으로 점점 더 유리상자–아트스타는 경력이 많고, 전국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잠깐 밝힌 바와 같이 유리상자–아트스타가 지역의 젊은 작가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일종의 관문 기능을 가진다고 볼 때, 이 기회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곧 유리상자–아트스타의 유명세가 지역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반증이니까 말이다.

마지막으로 추론해보는 사실은 실재 자료를 지금 구할 수 없는 관계로 여기서는 단지 기술description만 한다. 게다가 읽는 이에 따라서 이 추론이 특정한 작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편견에 찬 억측으로 비쳐질 우려도 있다. 뭔가 하니까, 프로그램에 선정된 작가와 코디네이터는 봉산문화회관 측으로부터 소정의 창작 지원금을 받는다. 이 돈은 작품 재료, 운송, 교통비, 다과 등을 감당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최소 보전 금액이다. 아티스트 피artist fee는 빠져있는 셈이다. 보통 작가들은 이 금액에 맞추어 작업하고, 더러는 작가 수당의 권리를 찾으려고 돈을 남기는 방법을 택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간혹 어떤 미술가들은 이 수당을 훨씬 뛰어넘는 돈을 자기 전시에 쏟아 넣는다. 돈과 더불어 작품 제작과 설치 기간의 길이도 엇비슷하게 같이 측정할 수 있겠다. 정도가 심한 몇 명의 다음 전시 경력은 창창하게 뻗어나간다. 이는 예컨대 비평가들의 평문이나 보도자료와 같은 공식적인 텍스트엔 빠진 채 후일담 같은 식으로 회자될 뿐이다. 뒷이야기가 사람을 끌어올리기도, 끌어내리기도 하는 법 아닌가. 대상의 가치 측정이 어려운 예술의 평가에서 스토리텔링은 간교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 아무리 영리한 자기 홍보라고



2014 유리상자ver.5 정혜련



2015 유리상자ver.3 이창진

하더라도 어쩌면 거기에는 우직한 헌신이 투여된 경우가 잦다. 남들보다 빨리 커 나가는 작가들은 이 투자 기회를 알고 최선의 방법을 찾은 거다. 어쩌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자원에 합당하게 일을 펼치는 게 더 나은 작가적 태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모르겠다. 이 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은 내가 할 수 없고, 또한 과잉 투자와 성공이란 두 변수 간의 인과 관계도 이 지면에서 증명할 수 없다.

남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로 정리하자. 유리상자–아트스타가 또 다르게 각별한 점은 미술평론하는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저변을 넓히는 일이다. 그게 전적으로 조직 책임자와 기획자가 고집스럽게 세운 –지역에서 작가만큼 평론가들도 성장해야 한다– 원칙 때문이란 걸 내가 알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 학식이 높은 한 사회과학 전공 교수가 쓴 미술 비평을 읽었다. 난 이런 글 읽기가 정말 재미있다. 전체적으로 그 텍스트는 '음, 내가 지금 미술평론을 쓰고 있는데 말이야' 라고 자신을 다그치듯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쉬운 것 같아도 아무나 못 쓰는 게 예술 비평이다. 내가 평론가 신분으로 접어들 무렵에 대구에서는 예닐곱 분의 선배가 활발하게 일선에 있었다. 어떤 분은 넓고 깊은 미술지식의 양으로, 또 누구는 온화한 인품으로, 또 다른 이는 콕콕 찌르는 듯한 필체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선배들이었다. 그 중에서는 유리상자–아트스타에도 여러 번 평론을 남긴 고 최창윤 선생도 있었다. 상업 화랑에 몸담은 큐레이터로서, 외부 프로젝트를 치르는 독립 기획자로서, 예술제도 현상을 은연중에 관찰하는 사회학자로서, 정체성이 흐릿한 내 본업이 평론이라면, 나는 유리상자–아트스타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난 지금도 가끔씩 지금 이 글쓰기처럼 유리상자에 관해 지켜보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유리상자에 선정된 아트스타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격려하는 일은 여전히 내가 미술을 통해 자기 성찰하는 동시대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DaeMun



2007–2015 유리상자 아트스타 56인과 함께 돌아본 역사

2015 유리상자ver.4 studio 1750,정혜숙

2007

Ver. 9 하지원 & 이소연–soya와 haji의 스튜디오 (9. 5– 9.29)
Ver.10 김지훈–김지훈의 스튜디오를 들여다 보다 (10. 5–11. 3)
Ver.11 김영희–유치찬란한 영희의 스튜디오 (11. 9–12. 8)

2008

Ver. 1 이장우–호접몽 (4.24– 5.25) / 코디네이터 김봉수 / 김옥렬 글
Ver. 2 정민제–원더랜드 (7.12– 8.3) / 코디네이터 김은영 / 최창윤 글
Ver. 3 한유민–光大 (9. 2– 9.28) / 코디네이터 정은영 / 홍준화 글
Ver. 4 정세용–Flying Machine (10.25–11.16) / 코디네이터 이소향 / 남인숙 글
Ver. 5 신경애–neutral (11.22–12.14) / 코디네이터 카와타츠요시 / 배태주 글
Ver. 6 강윤정–Draw–Crevice (12.23– 1.25) / 코디네이터 황현진 / 윤규홍 글

2009

Ver. 1 조용호–ECHO (3.17– 4.12) / 코디네이터 하은미 / 홍준화 글
Ver. 2 김정희–세제곱 (4.24– 5.31) / 코디네이터 이봉욱 / 김태곤 글
Ver. 3 권남득–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6.11– 7.12) / 코디네이터 권순자 / 권순자 글
Ver. 4 허남준–Art star mirror ball (7.14– 8.30) / 코디네이터 편재민 / 김종호 글
Ver. 5 로리킴–Rising Dreams (9.11– 10.11) / 코디네이터 박나라 / 서영옥 글
Ver. 6 이상헌–기억 잡기 (10.23–11.29) / 코디네이터 서희주 / 양준호 글
Ver. 7 정재훈–White out (12.11– 1.17) / 코디네이터 손영복 / 최창윤 글

2010

Ver. 1 하원식–조각난 풍경 (3.19– 4.25) / 코디네이터 이봉욱 / 양준호 글
Ver. 2 정은기–하늘 놀이 (5.7– 6.13) / 코디네이터 정세용 / 김영동 글
Ver. 3 손영복–Colorful palace (6.25– 8.1) / 코디네이터 정재훈 / 최창윤 글
Ver. 4 김소영–환(環)이 만들어내는 환(幻) (8.13– 9.12) / 코디네이터 홍찬근 / 배태주 글
Ver. 5 김 현–Dice Cast Dice Cast (10.1– 10.31) / 코디네이터 이봉욱 / 홍준화 글
Ver. 6 김미련–Monumental Aircoat in Glassbox (11.12–12.12)/코디네이터 박태호/김영동 글
Ver. 7 이준욱–A Vehicle (12.24– 1.30) / 코디네이터 이지혜 / 윤규홍 글

2011

Ver. 1 김홍기–꽃 (2.25– 4.3) / 코디네이터 조미경 / 양준호 글
Ver. 2 장 미–M Artist Room (4.15– 5.22) / 코디네이터 안유진 / 홍준화 글
Ver. 3 김철환–내가 생산한 것+사람들이 생산한 것(6.3– 7.10)/코디네이터 유기태/김옥렬 글
Ver. 4 강민정–Happy Skin Studi O (7.22– 9.4) / 코디네이터 박지영 / 윤규홍 글
Ver. 5 조경희–Blindly (9.23– 10.23) / 코디네이터 김 현 / 최창윤 글







Ver. 6 이시영–Becoming birds (11.4–12.11) / 코디네이터 정기엽 / 서영옥 글
Ver. 7 김승현–House is not a home–series 'empty' (12.23– 1.29) / 코디네이터 황현호 / 김영동 글

2012

Ver. 1 정기엽–유리 · 물 · 안개 · 소리 (2.24– 4.1) / 코디네이터 이시영 / 박소영 글
Ver. 2 최수남–허물을 벗다 (4.13– 5.20) / 코디네이터 박철호 / 서영옥 글
Ver. 3 박정현–aA : from art to Architecture (6.1– 7.8) / 코디네이터 노경환, 유창재 / 김옥렬 글
Ver. 4 권재현–매달린 소 (7.20– 9.2) / 코디네이터 권문순 / 최규 글
Ver. 5 이지영–Framing_Reflected Reality (9.14–10.21)/ 코디네이터 정지연 / 배태주 글
Ver. 6 김안나–Out/In the Universe (11.2–12.9) / 코디네이터 강선구 / 최창윤 글
Ver. 7 윤동희–망령 (12.21– 1.27) / 코디네이터 김승현 / 윤규홍 글

2013

Ver. 1 백장미–RE: BORN (The solid city)(3.1– 4.7) / 코디네이터 이은희 / 최창윤 글
Ver. 2 신강호–Link (4.19– 5.26) / 코디네이터 임영규 / 서영옥 글
Ver. 3 전새봄–현묘(玄妙)한 집 (6.7– 7.14) / 코디네이터 권세진 / 김옥렬 글
Ver. 4 이재호–모여라 꿈동산 (7.26– 9.1) / 코디네이터 박민경 / 권성아 글
Ver. 5 서상희–그곳, 집 (9.13–10.20)/ 코디네이터 석아름 / 정명주 글
Ver. 6 우재오–나를 위한 위로 (11.1–12.8) / 코디네이터 김안나 / 배태주 글
Ver. 7 이소진–어느...파쿤의 성 (12.20– 1.26) / 코디네이터 이은재 / 윤규홍 글

2014

Ver. 1 로미아키투브–Memory's Stain 기억의 흔적 (2.14– 4.13) / 코디네이터 김기수 / 김기수 글
Ver. 2 배문경–Cloned me (4.25– 6.22) / 코디네이터 서현규 / 박연숙 글
Ver. 3 Rohan–우리 인생의 특정 시점에 특별한 영향을… (7.4– 8.31) / 코디네이터 김아람 / 윤규홍 글
Ver. 4 서성훈–반야월 4.0 LIVE (9.19– 11.16) / 코디네이터 이경호 / 배태주 글
Ver. 5 정혜련–연쇄적 가능성 Serial possibility (11.28– 1.25) / 코디네이터 조은필 / 이영준 글

2015

Ver. 1 최선–자홍색 회화 (2.20– 4.19) / 코디네이터 유은순 / 송정훈 글
Ver. 2 홍희령–나는 모르는 일이오 (5.1– 6.28) / 코디네이터 이희령 / 최규 글
Ver. 3 이창진: 수평–Water always find it's own lever (7.10– 9.6) / 코디네이터 이승희 / 남인숙 글
Ver. 4 Studio1750+정혜숙–Flower Juice (9.18– 11.15) / 코디네이터 정혜숙 / 김옥렬 글
Ver. 5 오지연–감정세포:아름다운 짐 (11.27– 1.24) / 코디네이터 박준식 / 윤규홍 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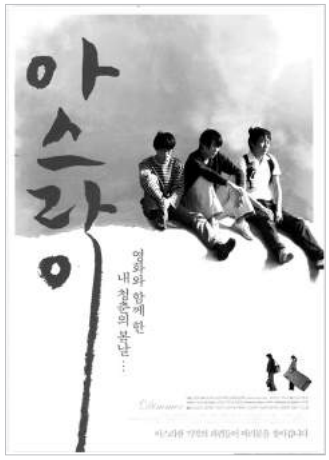
ver.1 이지현, dreaming book–바다 (2016. 2.19–2016. 4.17)/ 코디네이터 이경우 / 김용민 글
ver.2 제이미 리–Summer shower여름 소나기 (2016. 4.29–2016. 6.19) / 코디네이터 장세용 / 김옥렬 글

MOVIE

대구와 영화가 만난... 그 아스라한 기억에 관한 영화

대구경북시네마테크 대표 | **남 태 우**

지역에서 예술행위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행위의 주체이자 객체가 될 예술가 자신이 아닐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얘기를 드릴까 생각하다 곧바로 이 작품이 떠올랐다. 영화의 제목만큼이나 아스라한 기억의 밑자락에서 떠오른 것은 대구 동구産 독립영화 〈아스라이〉였다. 대구에서 만든 영화이자 대구의 문화와 그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감 없이 그린 작품인 이 영화는 당시 대구의 풍광도 잘 드러나 있고 지역예술의 현실과 그것을 이끌어가려는 잿빛 청춘의 모습을 흑백화면 속에 애잔하게 그리고 있다. 영화처럼 지역영화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그런 연유에서인지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2016년 6월인 것 같다. 물론 다른 예술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예술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심정이 착잡한 것도 사실이다.



〈아스라이〉는 그 어원만큼이나 뭔가 모호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거나 들릴 듯 들리지 않고 생각날 듯 생각날 듯 하면서도 가물가물한 기억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필자도 9년이 지난 영화를 애써 기억해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왜 이 힘든 기억의 편린을 잡으려 애쓸까? 그것은 바로 십 수년째

지역에서 영화라는 것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자 대구의 문화를 논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서울이외의 지역에서 영화를 비롯한 예술행위를 하는 이들이라면 십분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이라는 의미에서다.

간단히 영화의 내용을 보면 〈아스라이〉는 영화라고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호라는 인물이 영화에 입문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숱한 난관과 고초를 아주 리얼하게 다루고 있다. 결론은 액션영화나 첩보영화도 아닌데 기어코 또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아니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영화에 대한 이상한 불같은 열정을 노래한다. 그것도 당당하게가 아니라 절룩거리면서 말이다.

이런 점에서 2007년 김삼력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아스라이〉는 많은 영화에서 등장한 식상한 소재인 영화에 대한 영화이다. 그것도 변방의 독립영화를 다루고 있으니 이건 마치 일제하의 경북 시골마을의 소작농을 다루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러 그들은 일제치하인지 모르고 한국전을 맞이하기도 했다고 하니 말이다. 이 영화의 운명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정작 이 곳 사람들은 별로 보질 못했다. 그러나 분명히 영화 본연의 재미라는 정서가 베여있는 영화이고 이러한 점에서 소위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영화라는 것을 하나의 화두로 만들어냈다. 그 결과 그 해 인디포럼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상, 부천국제영화제 초청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동경 이미지포럼, 벤쿠버 영화제 등에 초청되었고 KBS1 TV 추석특집 독립영화관에도 방영되었다. 지금은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로드로 관람할 수 있다.

영화는 십여 년간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고자 한 감독 자신의 인생사를 통해 대구에서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영화청춘의 고뇌와 시련을 그리고 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대구의 제작환경의 열악함은 영화에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다른 또래들과는 조금은 다른 길을 가는 20대 영화청춘의 상실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이자 영화를 통해 삶을 이해하고 성장해가는 성장영화의 틀을 갖추고 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름의 초입에서 느닷없이 접하게 된 이 낯선 독립영화가 무척이나 생경할 것



이다. 그러나 조그마한 애정이라도 생길 것을 기대한다면 대구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싶다. 오랫동안 대구에서 일했던 감독과 촬영감독이 공들여 만든 HD흑백 장편독립영화로 2006년 여름부터 대부분의 로케이션을 대구에서 진행하였고 대구독립영화협회의 설립과 대구단편영화제의 탄생 등 대구영화운동 초기의 과정을 한 젊은 영화청춘의 영화에 대한 갈망과 시련을 자양분 삼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다. 포스터의 배경사진 역시 갈 곳 없는 영화청춘들이 아양교 다리 및 금호강에 앉아 영화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뇌하는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지역영화로 손색이 없고 이후 대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소재를 가진 독립장편영화들이 나오는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김삼력감독도 여러 편의 장편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갔고 조영직 촬영감독은 한국영화 최초로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의 촬영감독으로 큰 성과를 나았고 세계 영화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장률감독의 〈경주〉 등 여러 영화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물론 이 모든 영화적 성과의 출발은 〈아스라이〉라는 지역산 독립영화에서 시작되었다. 이상은 사실 예술적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렸듯 지역에서의 고단하고 지난했던 예술활동의 가치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또한, 〈아스라이〉는 2005년 독립장편영화 〈상어〉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독립장편영화의 제작열기를 잇는 작품이기도 하며,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의 지난한 역사와 함께 사무국을 비롯해 실제인물이 다수 출연하기도 하였고 필자 역시 실명으로 출연한 작품이기도 하다. 아울러 〈아스라이〉는 수도권 중심의 영화제작이 아닌 대구로 표현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화제작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도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모든 예술이 그렇긴 하지만 지역에서의 문화 창조행위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제작과정의 공과 과가 고스란히 담겨있어 타 지역에서도 참고하기에 좋은 작품이라 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감독과 촬영감독 모두 같은 사무실에서 수년간 일했고 우리들이 일했던 그 과정을 영화로 만든 것이기에 누구보다 실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출연도 했으니 제작과정도 잘 알



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영화보다는 현실이 훨씬 더 척박했음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현실이 별반 나아지지 않았으니 더 폐부를 찌르는 영화일지도 모르겠다. 개봉 후 감독에게 영화화하느라 현실을 좀 미화한 것 아니냐고 했으니 할 정도이니 말이다.

〈아스라이〉는 감독의 주장에 의하면 국내 최초 HD흑백 장편독립영화였다. 그런데 이점은 지금와서 생각하면 선견지명인지 몰라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최근 큰 화제를 일으킨 이준익감독의 영화 〈동주〉가 개봉돼 많은 분들이 흑백화면의 영화를 보셨을 텐데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것도 지역에서 이미 장편흑백영화를 시도하였다는 점도 영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점이다. 사실 처음에는 지역에서 영화뿐 아니라 뭘 하든 국내 최초 타이틀이 걸려야 그나마 남들이 보아준다는 척박한 현실에 기인한 감독의 고도의 마케팅전략이라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HD가 뭘 의미하는가 말이다. 고화질인데 역으로 고화질을 잘 안보이게 흑백으로 찍는 것이 국내 최초 HD흑백 장편독립영화라는 타이틀에 집착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까지 생각했었다. 그런데 완성 후 영화의 제목이 〈아스라이〉로 붙게 되자 청춘의 아스라한 기억에 관한 영화니 그 청춘은 잿빛일 거라는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었다. 결국 설득 아닌 설득을 당한 셈인데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도 미스터리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인지 아예 잿빛 꿈을 꾸려고 한 것인지 몽롱하니 말이다. 또한 이 영화는 영화적으로 색다른 점이 있다. 촬영기법에서도 길게 찍는 형태인 롱테이크를 많이 썼다. 그러다보니 클로즈업을 통한 인물들의 감정연기도 별로 없다. 그 결과 뭔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모를 풍경들을 아스라이 바라보는 그런 영화가 되었다. 이것 역시 의도인지 결과론적 미덕인지 모르겠지만 이 점이 더 이 영화를 아련한 기억으로 남게 한 것 같다.

또한 이 영화는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인디음악을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이채롭다. 2010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인 밴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씨의 곡인 〈절룩거리네〉가 그 노래인데 영화의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는 곡이었다. 그런데 이후 인디음악으로서는 엄청난 히트를 한 노래임에도 정작 작곡자이자 가수인 이진원씨는 엄청나게 곤궁한 생활을 하다 병마와 싸우며 쓸쓸히 그 생을 마감했다





는 점에서 그 안타까움이 더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술가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의 문제 등도 많이 거론됐었다. 그러나 지금도 이러한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이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영화와 인디밴드라는 열악한 조건에 놓인 두 예술이 아름답게 만났다는 기억만이 그나마 위안으로 남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아스라이〉는 완성도가 높은 영화가 아니다. 그러니 웰메이드나 대중적 파괴력이 있는 영화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화에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영화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으로 척박한 현실을 개척해 나가는 그 여정이 처연하면서도 아름답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여자 친구도, 후배도, 선배도, 교수도 그 누구 하나 그를 응원해주지 않는 척박한 지역현실을 딛고 우뚝 선 오뚝이 같은 청춘의 열정이 빛나는 미련한 영화이자 각종 영화제에 출품하여 무려 300번이나 떨어지고도 영화를 포기하지 않은 영화청춘을 그린 영화이다. 〈아스라이〉는 재능이 없음을 알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치는 우리 사회에서 그 현실을 인정하고도 열정으로 모든 걸 녹여버린 영화이다. 또한 고단한 현실에 지쳐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좌표를 잃어버린 모든 이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라고 말이다. 이는 지역의 모든 예술가들이 새겨야 할 지점이자 그 예술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오는지를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생각해 볼 부분이다. 또 한 편으로는 그 예술이 제대로 향유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문화시민의 의무임을 잊지 말자는 뜻이기도 하다.

덧붙여 지역영화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한다. 〈아스라이〉 이전에도 현종문감독의 역사적 기록이자 치열하고 용감한 시도였던 대구지하철참사를 그린 〈메모리즈〉라는 작품도 있었고 이후에도 여러 편의 장편영화가 만들어졌다. 최근작으로는 유지영감독의 수성못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세 젊은이가 얽힌 자살소동을 다루는 블랙코미디 〈수성못〉과 김홍완감독의 풍경같은 인생영화 〈소실점〉이 관객들에게 선보일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영화는 대구를 기억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 기억의 출발선상에 〈아스라이〉가 있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러면 이런 영화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나마 대구는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축복받은 도시가 아닐 수 없다. 작지만 내실있게 서울 못지않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지역영화를 활성화해 보자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인력들이 뭉쳐 전문성을 기르고 미흡하지만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작과 배급, 상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단편영화제를 필두로 전국 최초로 대구사회복지영화제가 만들어졌고 대구여성영화제도 생겨났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민과 연결하는 창구인 극장들도 생겨났다. 지금 대구에는 한국의 예술영화상영과 관련해서는 그 선구자적 지위를 놓칠 수 없는 동성아트홀이 있고 지역 최초의 민간독립영화전용관인 오오극장도 있다. 그러나 〈아스라이〉 영화와 무관하지 않게 십 수 년간 어렵게 지역에서 예술영화를 보급해왔던 동성아트홀도 작년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던 아픈 기억이 있다. 그나마 다행히도 오오극장이 생겨나 그 명맥을 이어 왔고 그 사이 불행 중 다행으로 동성아트홀이 재개관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통해 깔끔하게 새 단장까지 했으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안타깝게도 당사자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지역 영화인들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제작과정이 힘든 것 못지않게 관객과 만나는 것 또한 힘들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오아시스 같았던 이런 극장들도 행정적 지원이나 시민의 관심이 부족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다. 제 2, 제 3의 〈아스라이〉는 사실상 시민이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민의관심이라는 자양분 없이 지역영화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독립영화전용관과 예술영화전용관이 있는 도시는 국내에 매우 드물다. 이제 이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대구시민의 몫이다. 그러면 영화는 또 대구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화답할 것이다. 자! 레디 액션! DaeMun

10살 딤프의 성과와 과제

파워포엠 대표 | **최 원 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aegu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 이하 딤프이 아시아 최초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표방하며 2006년 프레Pre로 첫 발을 내디딘 지 10년, 이제 만 10살이 되었다. 사람의 나이로 보자면 이제 유년기를 지나 청년기로 접어드는 길목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받으며 출범한 딤프는 매해 성장을 거듭해오며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컬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향해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 지향점指向點을 향해 매진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딤프는 대구 뮤지컬 시장의 성장과 궤軌를 같이 해오며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한국 뮤지컬 산업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창작뮤지컬 지원 사업과 대학생 뮤지컬페스티벌 그리고 제 3세계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 뮤지컬들을 국내에 선보이면서 뮤지컬 관객 저변확대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외형상의 성과 이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성장속도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인적, 물적 인프라가 동반성장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다. 국제적인 공연예술축제를 치르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 딤프 조직위원회 상주 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한 노하우Know-how 단절, 전문 공연 프로그래머의 부재, 축제의 랜드마크Land Mark 역할을 할 전용 공연장의 부재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재해 있다. 여기에 창작뮤지컬 및 해외 뮤지컬의 아트마켓으로의 기능 강화, 창작 뮤지컬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와 세계적인 축제로의 도약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중, 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1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창작뮤지컬의 산실, 아트마켓으로의 기능 강화

딤프가 아트마켓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없을 듯하다.

딤프의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지원작의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창작뮤지컬 지원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딤프만의 창작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산 증액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의 제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지원과 가능성 있는 작품의 사후 지원 등 제대로 된 창작뮤지컬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다른 창작지원 프로그램과의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추구해온 완성된 형태의 공연을 전제로 한 창작뮤지컬 지원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창작



뮤지컬 인큐베이팅을 위한 쇼케이스Show Case 및 워크샵Work Shop 공연, 리딩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작품이 다시 완성된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창작뮤지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트라이 아웃Try Out: 브로드웨이 입성 전 주변 도시에서 관객과 미리 만나 피드백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 공연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새로 선보이는 뮤지컬들이 딤프와 대구를 거쳐 수도권에 입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딤프를 특화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초청작의 경우에도 선정범위와 선정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뮤지컬 프로듀서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딤프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만나고 해외 제작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 내외 뮤지컬 정보에 해박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능한 전문 공연 프로그래머 혹은 예술감독제 도입을 통해 작품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청 작품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것 가운데 한 가지로 대중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들 수 있다. 작품의 완성도와 예술성을 고려하되 대중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 내외 제작자들은 물론이고 '뮤덕' 이라고 불리우는 뮤지컬 마니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일단 많은 사람들을 대구로 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역축제로서의 한계 탈피와 축제의 성공여부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딤프를 통해 창작 뮤지컬이든 라이선스 뮤지컬이든 대구 발發 히트 뮤지컬 상품을 매년 하나씩이라도 배출하게 된다면, 그래서 딤프가 뮤지컬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면 딤프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리하여 향후 국, 내외 신생 뮤지컬들의 자발적 참여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딤프가 진정한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딤프가 매년 여름 시즌 찾아오는 일회성 축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해외초청팀과 국내 및 지역 예술인들의 교류의 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딤프는 국, 내외 제작자들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금까지는 공연을 올리는 데 급급해서 딤프 참가 팀들조차 축제에 참여한 다른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뿐 아니라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참가한 단체끼리 작품과 제작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노

하우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뮤지컬 전문 인력양성 및 관객 저변 확대

공연산업은 관람의 경험이 있는 관객에 의해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경험재' 산업이다. 좋은 경험을 접한 관객들은 지속적으로 공연장을 찾게 되지만 반대로 실망스러운 공연을 접한 관객들은 언제든지 공연장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대구에 어느 정도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작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객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작가, 작사가, 작곡가 등 1차 창작인력 그리고 연출, 안무, 조명 등 2차 창작인력의 양성 등 인적 인프라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 인력의 재교육 시스템까지 포함시키고 딤프 조직위 상주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도 연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적 인프라 양성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교육의 질과 강사의 수준인데, 최고의 수준으로 확보해서 지역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대구문화재단과 중복되는 사업은 일원화시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보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 양성과 병행해서 축제 기간 외에도 일반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 아카데미 등 연중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뮤지컬 저변 확대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뮤지컬 전용극장의 필요성

우선순위를 놓고 보자면 콘텐츠가 우선이겠으나 딤프의 얼굴, 뮤지컬 도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부산영화제의 상징이 된 '영화의 전당' 처럼 딤프를 방문했던 관객들이 딤프하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 딤프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뮤지컬 전용극장을 딤프 기간 동안 주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사무국, 프레스 센터 등을 배치하게 되면 딤프의 구심점이자 핵심 공간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다. 뮤지컬 전용극장을 딤프의 모든 공연과 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이자 인터뷰, 제작자들과 프로모터, 관객과의 만남 등이 이루어지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딤프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아트마켓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딤프 기간 외에도 국, 내외 뮤지컬의 장기공연 유치, 창작 및 라이선스 뮤지컬의 트라이 아웃 공연 유치 등을 통해 대구産, 대구發 뮤지컬의 산실 역할을 하게 된다면 뮤지컬 도시 대구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뮤지컬 전용극장의 건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딤프 기간과 딤프 이외의 기간에 대한 중, 장기적인 활용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뮤지컬의 미래, 학생 참여 프로그램 강화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한국 뮤지컬의 미래 주역이자 미래 고객들이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은 딤프의 미래와 뮤지컬 도시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나도 뮤지컬 스타',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으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딤프 기간에 경쟁을 위해 일시적으로 찾는 도시 대구가 아니라 향후 뮤지컬 스타가 되어, 혹은 관객으로 딤프와 대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잠재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경연 외에 딤프 기간 동안 이들에게 다양한 국, 내외 작품들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젊은 시절의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딤프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더 오래 대구에 머물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딤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딤프와 뮤지컬 도시 대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신한 부대행사 기획과 비슷한 기간 타 축제와의 상생 모색

뮤지컬 1~2편을 보기 위해 해외에서 그리고 타지에서 대구를 방문하기는 쉽지 않다. 축제기간 동안 참신한 부대행사들을 기획하여 공연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니라 도심거리와 연결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부대행사를 통해 대구 시민들은 물론 대구를 찾은 관객들의 낮과 밤이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연이 저녁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낮 시간대 다양한 부대행사의 개발은 관람객들의 체류시간 증대는 물론 공연장 중심 축제에서 도심 축제로의 공간 확장을 통한 축제 분위기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대구의 여름축제인 치맥축제, 대구 포크페스티벌 등과의 연계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상호 일정 조정을 통해 대구에서 뮤지컬도 보고 포크 페스티벌도 즐기고 야간에는 치맥 페스티벌에 가서 치킨과 맥주 한 잔 하면서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대구는 그야말로 축제의 도시가 될 것이다. 국, 내외 초청팀의 쫑파티를 치맥 페스티벌에서 하고 치맥 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이 뮤지컬 페스티벌을 즐긴다면 축제 상호간의 상생Win-Win은 물론이고 색다른 경험과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제공하게 되어 다시 찾고 싶은 축제, 다시 오고 싶은 대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좋은 콘텐츠와 예산이다

딤프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해 왔고 국제행사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제 딤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로 축제를 풍성하게 채우는 일이 남았다. 좋은 콘텐츠가 아트마켓을 만들고 앞서 제기한 많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콘텐츠 유치에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뮤지컬은 필름이 오가는 영화제와 달리 실연콘텐츠이므로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이제 대구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딤프를 대구를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현재 수준에 안주하며 지역축제에 머무를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하는 시점이다. 수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다른 축제들을 반면교사反面教師 삼아 현실에 안주하는 것

은 결국 도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확보가 우선된다면 협찬 유치, 티켓 판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딤프의 자생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전반적인 뮤지컬 시장의 침체 속에 서울뮤지컬 페스티벌이 중단되고 각종 뮤지컬 시상식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행히 딤프는 뮤지컬페스티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에 안주해서는 딤프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키워야할 부분은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딤프만의 정체성을 좀 더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직 딤프에서만 볼 수 있는, 딤프만의 색깔을 가진 국제뮤지컬페스티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양질의 뮤지컬 컨텐츠를 유치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예산 문제와 함께 앞서 언급한 문제점과 과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것이 대구시와 딤프 조직위의 과제가 될 것이다.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 딤프 사무국의 전문성 강화, 대구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조화를 이룰 때 딤프는 진정한 뮤지컬 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이자 아시아 뮤지컬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10년, 딤프의 의미 있는 도전을 기대해 본다. DaeMun



대구시립무용단 History & Vision

무용평론가 | **김 예 림**




1대감독 김기전


2대감독 구본숙


3대감독 안은미

대구시립무용단은 1981년 창단되었다.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시립 차원의 예술단체들이 출범을 시도했고 그 가운데 무용단으로는 이례적으로 현대무용을 선택했다. 대구시립무용단은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초대 예술감독 김기전金起田 안무의 <산>으로 창단공연을 가진 이례 36년간 6명의 예술감독을 통해 70회의 정기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대구시립무용단의 창단에 대해 당시 동아일보는 '대구에 국내 첫 시립현대무용단' 이라는 제목아래 '문화의 지방확산 가능성' 이라는 주제의 글을 게재했다. 1981년 3월 17일자 기사 내용을 보면

… … 대구에서는 시립 무용단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구시립현대무용단이 창단되어 활발한 공연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원래 대구시는 직할시 승격에 앞서 현재 시립교향악단 말고도 몇 개 시립공연단체를 더 만들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공연단체를 창설하느냐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렸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무용단이나 국악단을 창단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시립교향악단 단장인 조규호씨가 주축이 되어 "다른 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현대무용단을 만들어 대구의 진취적인 이미지를 심어보자" 는 주장이 결국 시당국에 받아들여져 현대무용단이 창단되기에 이른 것.

대구시립무용단이 특히 돋보이는 것은 바로 국내 최초의 시립현대무용단체라는 점이다. 무용평론가 조동화씨는 "지방도시의 무용은 대부분 한국무용이 중심이 되고 발레나 현대무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 이라면서 "이번 대구시립현대무용단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지방도시에서의 현대무용 정착 가능성을 가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새 창단멤버들의 각오도 대단하다. 무용단 단원 유분순씨대구신일여자전문대 전임강사는 "최근 7,8년 동안 대구무용계가 계속 침체해 있었으나 이번 창단 단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 전하면서 "서울에서 무용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고향에 돌아와 그곳에 어울리는 독특한 창작 현대무용을 해가는 일은 더 매력 있는 일" 이라고 말했다. (대구–홍찬식 기자)

근래의 대구시립무용단 공연을 본 사람들은 창단시기 무용단의 환경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4대감독 최두혁


5대감독 박현옥


6대감독 홍승엽

초대 예술감독당시에는 단장이라 불렸다 김기전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립무용단 출범을 이렇게 기억했다.

– 1981년 대구 직할시가 되면서 각계에서 예술단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무작정 의욕을 기지고 모였죠. 단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관이 없어서 서울과 부산의 것을 참고하여 우리 것을 만들었고, 1년간 준비 끝에 무용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구소의 좋은 아이들은 모두 서울로 가고 대구에 남지 않았어요. 대구에 대학 무용과가 없기도 했지만 무용에 대한 인식이 지금 같지 않았거든요. 대구 시청 뒤 분도 소극장에 세를 얻어 연습장으로 사용했는데 제 연구소에 있던 옷장, Bar 등 살림을 다 가져다 썼어요. 당시 단장 월급이 15만원, 훈련장 월급이 8만원이었고 단원 보수는 없었어요. 출연료라도 많이 받게 해주려고 많은 공연 스케줄을 잡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야외공연 등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뛰게 한 것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무용단 창단이 시에서 먼저 추진한 것이 아니라 무용가들이 앞장서고 시가 그 뒤를 따랐다는 것도 당시 예산에 대한 김기전 前예술감독의 말에서 알 수 있다.

– 우선은 제 돈을 들였죠. 정기공연 1회에 약 500만원을 들여 공연했는데 시에서 돈을 주지 않았지만 언젠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번 예산서를 만들어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가져가서 보여주었죠. 3년 째 되던 해에 의상비와 비상임 출연료 3만원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의상비가 부족해서 흰 옷을 맞춰서 한 번 입고는 염색하고 고쳐가며 세 번을 써먹기도 했습니다. 〈산〉 〈구름아 풍선아〉 〈걸음으로부터〉를 차례로 발표했는데 〈걸음으로부터〉에서 10명의 출연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전 감독은 1987년 제12회 정기공연을 끝으로 15명의 정규단원 자리를 확보하고 퇴임했다. 그 뒤를 이은 구본숙具本淑 예술감독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13년간 25회의 정기공연을 제작했다. 구본숙 감독은 정단원 수를 40여명으로 확대하고 대극장 중심의 레퍼토리들을 다수 제작하며 무용단의 구조와 성격을 지금의 것으로 확립시켰다. 1975년 효성여대현 카톨릭대학교, 1984년 계명대



학교에 무용과가 생겨나면서 무용수 수급이 수월해졌고 전국적으로 창작무용이 활성화 되던 시기였지만 예산 확보 등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정기공연 외에도 단원 창작활동, 청소년을 위한 공연, 달구벌축제 등 무용단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도 했는데, 특히 국립극장에서 주관했던 전국 시도립무용단 무용제에 1989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참가하여 대구의 현대무용 현황을 중앙무대에 알렸다. 그 밖에 구본숙 전 감독은 일본의 안무가 고노준[1991], 미국과 독일에서 활동해 온 미나유[1996], 1998년 프랑스 바뇰레 국제안무경연대회 그랑프리를 수상한 안애순[2000]을 객원 안무가로 초청하여 무용단의 레퍼토리를 다양화 시켰다. 구본숙 감독의 13년 장기 재직 후 대구시립무용단 예술감독 및 상임 안무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졌다.

대구시립무용단은 3대 예술감독 임명에 파격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다. 안은미를 선택한 것이다. 대구 출신도 아니고, 대구에서 활동하는 무용가도 아닌 그를 선택한데는 여러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구시립무용단의 무대를 '대구'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우선 엿보였고, 무용단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보다 많은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다. 서울뿐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안은미는 취임 후 첫 작품으로 〈대구별곡〉을 발표했고 호불호가 나뉘기는 했지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3년 재임동안 대중성 높은 작품들을 발표한 안은미는 무엇보다 새로운 작업 경험을 통해 단원들의 춤, 연기 폭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남겼다.

만 5년간 대구시립무용단을 이끈 최두혁 감독의 방향성은 소극장공연 활성화를 통한 관객확대와 해외진출에 있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2007년과 2008년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 참가했고 그 성과로 2009년 독일 보쿰에 초청되어 공연하기도 했다. 최두혁 감독은 무엇보다 대구에서 나고 자란 대구 현대무용의 진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는 대구의 1, 2세대 무용가들이 기반을 다져놓은 후 배출해 낸 인물로 대구만이 가진 현대춤의 류流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순도를 가진 무용가였다. 당시 서울의 현대무용과 굳이 비교하자면 최두혁 감독의 춤은 강렬하고 거친 어휘들이 도드라졌고, 기교가 강조된 것들이었다.

5대 예술감독은 2009년부터 5년간 재임한 대구가톨릭대학교의 박현옥교수였다. 그는 '해설이 있는 현대춤'을 신설해 관객의 호응을 얻었고, 〈청산

별곡〉 등의 수작을 발표해 해외 초청을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박현옥 감독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내부 개혁을 통한 무용단 역량 강화이다. 직업 무용단이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과 정신적 해이, 인력 순환의 정체 등을 해결하고자 오디션 제도를 통해 단원을 재정비하고 신입단원 선발로 젊은 피를 수혈했다. 그 외에 무용단 역사의 기록을 정비하여 전시하고 1, 2대 감독인 김기전, 구본숙을 초대하여 대표작을 재안무하는 등 대구시립무용단의 정체성과 구조를 탄탄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2014년 새롭게 임명된 6대 예술감독 홍승엽은 국립현대무용단 초대예술감독을 역임한 인물로 1990년대 이후 남성 안무가로 국내외에서 압도적 존재감을 유지해 온 안무가이다. 그는 2015년 신작 〈코끼리를 보았다〉로 평단과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좋은 시작을 알렸고, 올 해에는 제70회 정기공연에서 신작 〈소가 너머 간다〉를 발표한다. 박현옥 전 감독이 끌어올린 대구시립무용단 단원들의 기량이 홍승엽 예술감독을 만나 발휘되고 있는 만큼 남은 임기동안 발표될 대구시립무용단의 작품들에 큰 기대를 가져본다.

1981년 창단 이후 36년을 지나온 대구시립무용단의 시간은 오늘 무엇으로 남아있을까? 6명의 예술감독 체제를 지나오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적 시간을 지나온 대구시립무용단의 지난 행보는 그 방향마다 유익했다고 할 수 있다. 창단의 추진력을 보여준 김기전 초대 감독, 무용단의 규모와 체계를 확립시킨 구본숙 2대 감독, 동시대성과 대중성을 입혀 혁신을 시도한 3대 감독 안은미, 대구현대무용의 현주소를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준 최두혁 4대 감독, 안정적 운영 속에 무용단 수준 향상에 개혁을 이룬 5대 박현옥 감독까지 하나 하나 값진 의미와 수확이 있었던 체제의 리더들이었다.

그런데 관객의 입장에서 대구시립무용단의 아쉬움을 꼽자면 예술감독의 짧은 임기에 따른 잦은 변화이다. 변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감독이 자신의 뜻을 충분히 펼쳐보일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기에 아쉽다는 것이다. 물론 연임제도가 있으나 보장되지 않은 것이니 2년 이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안정한 것이다. 박현옥 전 감독은 인터뷰에서 임기와 역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 저는 감독으로써의 책임 특히 연봉보장이나 우수단원에 대한 대우 등 행정상의 문제를 해결해

야 하는데, 이런 사안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예술단, 시 의회 등 여러 과정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직책의 정확한 명칭이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입니다. 상임안무자의 몫은 제 스스로 풀어야할 숙제지만, 예술감독으로써의 일도 중요하다고 봐요. 단원 복지, 훈련, 기획 등 감독의 마인드는 중요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2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대구의 근대사적 특성은 전국 최초의 시립 현대무용단을 창단하게 했다. 근대예술에서 현대예술까지 문화적 콘텐츠가 탄탄한 대구에서 무용이 오페라나 뮤지컬만큼 인기를 얻는다면 독일의 부퍼탈피나 바우쉬를 통해 유명해진 도시처럼 무용공연을 보기위해 전국에서 모이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의미에서 동시대성을 가져야 한다. 동시대성이란 예술작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기획력, 관객의 이해와 변화를 따르는 시각까지 무대 밖의 것들에까지 적용되어야 완전한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구를 '컬러풀 대구' 라고 한다. 2009년부터 대구시와 매일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도 매년 열리고 있다. 대구문화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이 각자의 성격을 드러내며 발전한다면 진정한 컬러풀 대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대구무용의 성격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을까? 그 정체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한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감독의 교체로 서로 다른 색이 덧칠해지고 있지만 그 덧칠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대구시립무용단의 컬러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관객과 사회의 변화를 읽고 동시대가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 무용단으로 그 생명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DaeMun

문화공감

예술정원 '藝園'

예술비평 Ⅰ 네오클래식 5번째 무대, 프랑스 현대음악의 신비로운 색채와 경건한 울림을 전하다_박철하
예술비평 Ⅱ '264 작은 문학관'의 개관과 노태맹 시집『벽암록을 불태우다』_정지창
대구, 지금 여기 작은 문학관의 활성화를 기대하며_이하석
대구, 지금 여기 아트클럽 삼덕 – 청년작가의 꿈을 키운다_최성규

네오클래식 5번째 무대, 프랑스 현대음악의 신비로운 색채와 경건한 울림을 전하다.

클터예술문화연구소장 | **박 철 하**



지난 5월 20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는 현대음악 기획프로그램 '네오 클래식 시리즈' 의 다섯 번째 무대가 공연되었다. 대구콘서트하우스 기획공연 디퍼런트 시리즈 중의 하나로서, 2014년 6월 24일 이후 일년에 두 번씩 기획공연 되고 있는 '네오클래식 시리즈' 는 이번 연주까지 총5회의 공연을 모두 매진하는 등 큰 관심을 받으며, 대구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프렌치 스펙트럼' 이라는 부제를 갖고 기획된 이번 공연에서는 드뷔시와 라벨, 에릭 사티, 그리고 메시앙 등 프랑스 작곡가의 음악이 연주되었다. 에릭사티의 피아노곡 〈짐노패디〉와 라벨의 피아노곡 〈물의 유희〉 등 친숙한 피아노 음악으로 시작한 이번 공연은 이어진 두 곡의 실내악 작품이 유럽음악의 역사적인 작품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었다.

'유럽 현대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 으로 잘 알려진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이 제1부 순서의 마지막 곡으로 공연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 포로수용소에서 초연된 곡으로서 20세기 전반부 유럽음악을 대표하는 곡 중 하나인 메시앙의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가 제2부 순서에 연주되었다.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은 인상주의 작곡가인 드뷔시가 원래 관현악 편성으로 작곡한 곡인데, 이번



네오클래식 예술감독 **권 은 실**

공연에서는 플룻, 클라리넷,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등으로 구성된 6중주 실내악으로 편곡된 곡으로 공연되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전설적인 안무가 니진스키가 안무하고 공연한 오리지널 모던발레의 영상과 함께 3명의 무용수가 같이 공연하였다.

드뷔시는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에서 영감을 받아 1894년에 이 전주곡을 작곡하였고, 이 후에 1912년 5월 파리의 샤틀레 극장에서 이 음악과 함께 니진스키가 안무한 모던발레가 찬사와 야유를 동시에 받으며 공연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계명대 교수인 스웨덴 출신 무용가 요한 스테른홀름이 오리지널 안무를 따라 자신이 다시 안무한 무용을 다른 2명의 무용수와 함께 공연하였다.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을 연주한 '앙상블 클랑파브릭' 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실내악단으로서 '네오클래식' 을 예술감독하고 있는 작곡가 권은실이 이끌고 있으며, 필자가 지휘,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이번 연주에는 플루티스트 하지현과 클라리넷티스트 김선형, 바이올리니스트 김효진, 비올리스트 배은진, 첼리스트 배원, 그리고 피아니스트 최효진이 함께 했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한 곡은 관현악 편성으로 된 원곡의 신비로움과는 사뭇다른 분위기의 실내악 편곡으로서 자칫 원곡의 이미지를 기대하고 온 관객에게 실망감을 줄 수도 있는 시도였지만, 연주자간의 훌륭한 호흡과 좋은 해석으로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앙상블 클랑파브릭' 은 앞으로도 계속 '느껴지고 와 닿는' 현대음악을 위해 힘을 쓰고 발전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제2부 순서에서 연주된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는 메시앙이 포로수용소에서 작곡하고 초연한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더욱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1908년에 태어나고 1992년에 사망한 메시앙은 작곡가이면서 동시에 오르가니스트였으며, 또한 조류학자이기도 하였다. 조류에 대한 관심으로 메시앙은 많은 새소리를 채집하였고, 새소리를 채집하여 음악적으로 구성한 새소리 음형이 그의 음악에서 자주 등장한다. 또한 독실한 카톨릭 신앙을 가진 오르가니스트로서 성경에 근거한 음악들을 많이 작곡하였다. 시대를 선도하는 작곡가로서 그리고 작곡 선생님으로서 그는 불레즈, 슈톡하우젠 등 후배 작곡가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쳐서 20세기



요한 스테르홀름(현대무용가, 안무가, 계명대 교수)

후반부에 나타나는 음렬주의 음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는 메시앙의 이러한 특징들이 골고루 잘 나타난 작품이다. 성서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한 문구들, 새소리,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곡기법 등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이번 연주는 'DCMF 앙상블'의 연주로 이루어졌는데, 이 앙상블은 '젊은음악인의모임'이 주최하는 대구국제현대음악제를 위해 창단된 실내악단으로서 대구의 현대음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단체이다. 그들의 연주는 혼신을 다한 연주로서 관객을 감동시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연주자와 관객이 한마음이 되어서 신비롭고 거룩한 울림을 잘 느꼈던 것 같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혜, 클라리넷티스트 김민지, 첼리스트 오소영, 피아니스트 윤민경 등이 참여한 이번 연주는 기술적으로 잘 발휘된 연주를 넘어서 감동을 만드는 연주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다.

연주회의 시작을 열었던 피아니스트 박혜연이 처음으로 연주한 음악은 드라마 등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으로서 에릭 사티가 작곡한 단순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의 〈짐노패디〉였다. 사티는 살롱음악가로서 당시 피카소, 장 콕토 등 다양한 분

야의 예술가들이 모이던 살롱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작곡하던 음악가였다. 드뷔시와 음악적으로 교류하며 서로 영향을 미쳤고, 드뷔시는 사티의 〈짐노패디〉를 관현악 편곡하기도 했고, 그 관현악 편곡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방송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그 다음으로 연주된 〈물의 유희〉를 작곡한 라벨은 드뷔시와 함께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을 이끌었으며 좋은 피아노곡과 훌륭한 관현악 기법으로 유명한 작곡이다. 〈물의 유희〉는 1901년에 작곡된 것으로서 인상주의 피아노 음악에서 대표적인 작품이다. "강의 신은 물결이 간지럽혀 웃고 있네" 라는 서문이 붙어있다는 이 작품은 협화음과 불협화음이 아주 색채적으로 잘 어우러져있는 작품인데, 피아니스트 박혜연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표현으로 잘 연주해 주었다.

이렇게 사티, 라벨, 드뷔시, 메시앙 등 20세기 전반부의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을 한 무대에서 듣고 감상할 수 있었으며, 특히 "예술감독 권은실의 해설과 이희주 선생이 준비한 영상이 공연을 감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청중의 반응이 있었다. 음악과 영상과 무용이 함께한 연주회로서 청중들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현대음악 연주회의 좋은 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현대음악 공연문화를 이끌어가는 〈네오클래식〉 시리즈

〈네오클래식〉시리즈는 예술감독 권은실의 책임기획으로 매 번 의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반시민 청중과 음악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동안 〈네오클래식〉은 첫 번째 공연에서 '존 케이지 그리고 …' 라는 부제로 기획되었는데,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음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그날 공연에는 작곡가, 연주자, 사운드 디자이너 등 음악인들과 설치미술가, 영상감독, 퍼포먼서 등이 함께하여 종합적이고 파격적인 공연을 하였다.

〈네오클래식2탄〉은 '쇤베르크와 음열주의:왜 조성을 탈피했어야만 했는가?' 라는 부제로 기획되었는데, 바로크음악 시대로부터 고전, 낭만시대를

지배하던 조성음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의 음악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독일음악을 소개하였다. 바리톤 윤혁진과 남자은의 피아노로 연주된 쇤베르크의 가곡으로부터 〈정화된 밤〉, 〈달에 홀린 삐에로〉 등의 역사적인 작품과 피아니스트 김주희의 연주로 음열주의 피아노 작품의 대표작들까지 한 무대에 올려서 성공적으로 공연함으로써 현대음악 공연기획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공연이었다. 특히 스트링앙상블 '소리'가 현악6중주로 연주한 〈정화된 밤〉은 뛰어난 완성도로,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참석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 음악가들에게도 감동을 주었다. '모던 앙상블'이 연주한 〈달에 홀린 삐에로〉에서는 정호재의 마임이 영상과 함께 함께하여 공연을 풍성하게 했다.

〈네오클래식3탄〉은 미국출신 작곡가이며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톰 존슨의 〈4음을 위한 오페라〉를 공연하였다. 그 작품은 '최소주의' 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미니멀리즘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이다. 권은실과 김중희의 연출로 4명의 성악가와 피아니스트 김신영의 피아노 연주로 공연되었는데, 양원윤, 류선이, 유호제, 조정래 등 오페라 가수들의 연기와 표현력이 인상적이었으며, 홀로 피아노로써 음악을 받들어 낸 피아니스트의 연주도 인상적이었다.

〈네오클래식4탄〉은 스트라빈스키의 〈병사의 이야기〉를 무용, 내레이션과 함께 공연하였다. 〈병사의 이야기〉는 모두 11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명의 연주자와 더불어 내레이터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 가고 무용이 함께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여러 악기들이 각기 다른 박자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가는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로 조화롭고 음악적으로 연주하기 어려운 음악으로서 많은 젊은 지휘자들이 도전을 꿈꾸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 공연에서 요한 스테른홀름이 안무를 맡았고, 조삼열의 내레이션, '앙상블 클랑파브릭'의 연주로 공연되었다. 지휘, 음악감독은 필자가 맡았으며, 총감독은 권은실, 각색 및 무대는 이희주, 영상은 김병기, 음향은 서영완, 영상촬영은 박준형 등이 함께 했다. 바이올린에 이강원, 클라리넷에 김은세, 바순에 이창건, 트럼펫에 이수진, 트럼본에 권외석, 콘트라베이스에 이효선, 타악기에 최문종 등이 참여하였다. 대구콘서트하우스 이형근 관장과 대구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 등이 공연을 감상하고 난 뒤 무대 뒤에까지 연주자들

과 공연자들을 찾아가 축하와 격려를 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한 관심은 대구의 현대음악 공연문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음악은 지원하고 지켜야 할 화초 같은 존재다. 공공극장으로서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화초를 키워나가고 보존해 갈 것이다. 클래식 음악 중 소수장르인 현대음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이형근 관장의 발언에 주목하기 바란다.

대구콘서트하우스가 이러한 현대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과 음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다른 도시의 공적인 공연장에서도 벤치마킹 하여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DaeMun

'264 작은 문학관'의 개관과 노태맹 시집 『벽암록을 불태우다』

문학평론가, 전 영남대 독문과 교수 | **정 지 창**

지난 5월 10일 대구시 중구 북성로에 '264 작은 문학관'이 문을 열었다. 이육사본명 이원록, 1904~1944 시인의 고향인 안동에 지난 2004년 세워진 '이육사문학관'에 비해 작고 아담한 이 문학관은 경북대 국문과의 박현수 교수 형제가 사비를 들여 만든 대구 유일의 사립 문학관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대구는 또 하나의 문화적 자산과 자부심을 지도에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학관의 15평도 채 안 되는 2층 전시실에는 육사의 생애와 시, 그리고 이 문학관의 건립과정을 일련번호를 달아 시각자료로 전시해 놓았다. 관람객은 관심 있는 항목의 번호를 안내 책자에서 찾아 상세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특히 주마간산으로 쓱 훑어보고 지나가기 일쑤인 청소년들에게 차분하게 의자에 앉아 심층 자료와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도록 유도하는 참신한 전시 방식이다. 이 문학관은 주말에는 낮에, 주중에는 저녁에 문을 연다. 박현수 관장은 앞으로 시낭송과 문학토론회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산동에 남아 있는 육사의 고택은 이전 복원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남은 과제는 박교수와 그 가족들의 헌신과 봉사에만 의지하고 있는 문학관의 관리 운영을 대구시나 문화재단, 또는 육사문학 애호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육사는 1920년16세에 대구로 이사와 1937년33세 서울로 옮길 때까지 17년을 대구에서 살았다. 불과 40세의 나이에 북경에서 옥사한 육사에게 대구는 청년기의 대부분을 보낸 제2의 고향이었던 셈이다. 그는 1930년 이활이라는 필명으로 「조선일보」에 「말」을 발표하여 시인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대구에만 눌러앉아 창작에 전념한 것은 아니었고 수시로 외국과 감옥을 들락거린 열혈 청년이었다. 그가 대구형무소의 수인번호 264를 필명으로 삼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 그는 유서 깊은 진성 이씨 양반 가문에서 퇴계의 14대손으로 태어났으나 1년여의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1925년 의열단단장 김원봉에 가입하고 1932년에는 윤세주와 함께 의열단이 운영하는 남경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으로 입학하여 6개월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다. 군사간부학교 시절에는 권총 사격술에서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외동딸 이옥비 여사의 회고에 따르면 그가 존경한 인물은 의열단장 김원봉과 친구이자 스승인 윤세주였다.

박현수 교수는 육사의 문학적 기반을 퇴계의 주리론主理論으로 보고 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가 옳다고 여긴 바를 꿋꿋이 밀고 나가는 이른바 '금강심'이 육사 시의 바탕이며 금강심은 육사의 시에서 '비극적 구조'와 '단정한 형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비극적 구조란 일제와의 항일투쟁이 승산 없는 싸움인줄 알면서도 스스로 고통과 희생의 길로 뛰어드는 결연한 의지의 필연적 귀결이다. 한편 육사는 동일한 수의 시행들을 규칙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단정한 형식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금강심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시형식이라고 박교수는 주장한다. 육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절정」은 이러한 비극적 구조와 단정한 형식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그러나 육사의 '금강심'은 유교가 아닌 불교에서 가져온 개념이 아닐까? 금강심이란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는 금강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신심과 의지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이고, 요즘에는 절집에서 신실한 여신도들에게 '금강심'이란 법명을 지어주는 경우도 많다. 육사가 유교적 가풍 속에서 자라나 한시를 짓고 묵난을 치는 선비의 교양과 체취가 몸에 밴 것은 사실이나, 청년 시절에는 당시의 시대적 추세에 따라 다양한 사상과 문예사조의 세례를 받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1920년대와 30년대 일제의 감옥은 정치범들의 학교였고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에스페란토 학습은 필수과목이었다고 한다. 육사의 편지에 보이는 에스페란토와 신문 기고문이 이를 증명한다. 「교목」에 붙은 'ss에게'란 헌사도 윤세주가 아니라 신석초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1935년 무렵부터 육사의 절친이 된 석초는 카프에서 탈퇴한 이후 불교적 세계관과 단아한 고전적 형식을 결합시킨 작품들을 썼는데, 혹시 육사가 그를 통해 불교적 세계관에 접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육사는 일본과 만주,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숱한 인물들과 교류했고, 북경에서 만난 노신魯迅이 죽은 후에는 추도문을 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다. 비록 국내에서는 사상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식민지의 청년이었지만, 육사는 동북아 3국을 수시로 넘나들며 요즘 청년들보다 훨씬 다양한 사상과 종교를 체험하고 무장투쟁을 포함한 각종의 독립운동과 문예운동의 영향을 받았을 터이다.

역사학자인 도진순 창원대 교수도 육사가 북경 감옥에서 쓴 절명시 「나의 뮤-즈」와 「꽃」을 불교적 맥락으로 해석한 바 있다.

「광야(曠野」와 「청포도」 등 다른 작품에 대한 그의 새로운 해석도 기존의 육사 시 연구에 자극을 주는 신선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청포가 동학혁명군과 관련된 이미지라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육사의 사상과 문학은 좀더 다양한 통로와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 전모가 조금씩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264 작은 문학관'이 이런 연구와 토론의 중심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8년만에 나온 노태맹의 세 번째 시집 『벽암록을 불태우다』는 21세기의 이른바 '헬조선'이라는 화탕지옥의 불길 속에서 시인이 어떻게 자신을 추스르고 견뎌내고 단련시켜 "가난한 노래의 씨"육사의 시 「광야」의 한 구절를 뿌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행일기다. 이것은 볼리비아의 안데스산맥을 헤매는

혁명가 체 게바라의 일기처럼 무미건조한 사실들의 조합과 나열도 아니고, 만주 벌판과 식민지 조선의 감옥에서 단련되고 정제된 육사의 시편들처럼 선비의 품격과 율격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여기에는 순결한 혁명을 꿈꾸는 시인의 영혼이 매순간 피투성이 싸움을 겪으며 토해내는 고통의 신음들이 일상/지옥의 진부하고 낯선 이미지들과 뒤섞여 빨래처럼 펄럭이는데, 그것들을 매달고 있는 빨랫줄은 벽암록이라는 선문답의 경전이다. 그러니까 벽암록은 여기서 금강심을 이미 터득한 선사의 가르침도 아니고 그것을 저절로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영통한 부적이나 주문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금강심을 향하여 끝없이 자신을 수행하고 단련하기 위한 채찍이자 방편에 불과하다.

지혜와 깨달음의 결정체인 경전은 어두운 시대에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앞길을 지시해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강철 무지개’로 보이지만, 밝은 대낮에는 오히려 강철 족쇄가 되어 우리를 옥죄고 얽어맨다. 그러기에 시인은 한 구절 한 구절 곰곰이 씹어가며 되새기고 익혀온 벽암록을 어느 순간 불태워 버린다. 한 때 금강심을 가지고 추구했던 이념과 사상도, 그리고 심지어는 혁명의 열정까지도, 어느 새 그것들이 옹호하고 대변한다고 믿었던 가치들로부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수의 성채城砦가 되어버리는 역사의 배반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해왔다. 그렇지만 더 따스한 세상과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향한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 시인은 아무리 고통스런 화탕지옥 속에서도 푸른 허공과 붉은 꽃을 꿈꾼다. 에른스트 블로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無의 망망대해 한복판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실험과 모색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과 혁명가의 숙명이자 축복이다.

노태맹의 시는 쉽게 이해되고 소통되지 않는다. 많은 이들에게는 난해한 암호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독자들은 얽히고설킨 미로와 이중 삼중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난감해 하는 독자들을 위한 안내문처럼 책 뒤편에 붙어 있는 「산문. 碧巖錄을 읽다」를 먼저 읽고 시를 읽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를테면 경전벽암록과 시에 관한 노태맹 시인의 생각을 들여다보자.

“경전은 우글거리는 이미지의 장소이지 진리의 장소가 아니다. 시는 채색된 이미지의 짜임이지 진리의 짜임이 아니다. 담론이 아니라 이미지가 허락하는 한에서만 시인은 시인으로 남는다.”

"시인은 이미지를 통해 동시대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동시대인은 시대의 빛이 아니라 어둠을 인식하기 위해, 그곳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존재' 아감벤이다."

"벽암록 연작의 이미지들을 통해 내가 시도하려는 전략은 그 낯선 이미지들의 진동 사이로 쭉 미끄러져 나와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오는 진흙들처럼.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으리라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내 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묻지 마라. 내 시는 불덩어리이거나 다 타버린 흰 재다. 소통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저 그 불덩어리나 흰 재를 가슴에 오래 안고 있어주면 좋겠다. 나는 이미 벽암록을 불태워버렸다. 그리하여."

좀 이해가 되는가? 더 알쏭달쏭하고 어렵다고? 그렇다면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음의 시를 읽어보자. 시험문제 풀이를 전제로 국어시간에 배운 방식대로 이 단어는 무엇을 상징하고 이것은 무슨 수사법인지 따위를 따지지 말고 그냥 소리 내어 여러 번 읽어보자. 전문 시낭송가처럼 목소리를 착 깔고 감정을 잡아 과장된 제스처로 읽지 말고 담백하게 그러나 언어의 결을 따라 천천히. 지금까지 가졌던 시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마음에 미묘한 파문이 인다면 당신은 이미 노태맹 시인의 독자이자 친구가 된 것이다.

백일홍나무 아래 붉은 강이 흐르다

– 굴뚝 위의 노동자 차광호를 위하여

아직 붉다.
백일홍꽃들을 겹겹이 감싼 시간의 손들이
꼼꼼히 붉음을 덜어내고 있는 동안에도

아직 사랑은 붉다.
아직 사랑은 붉다.

푸른 숲이 산꼭대기에 구름을 내려놓고 온 바람들과
저 나부끼는 허공의 깃발을 꿈꾸는 동안에도

사랑은 그림자조차 붉다.
이 굴뚝 위에서조차 붉다.

어리석음은 언제나 나를 감싼 옷과 같지만
어쩌겠는가, 내 이제 이 붉은 꽃의 모든 어리석음과 화해하련다.

사랑이여, 사랑이여 백 일을 붉었다.

그리하여 나 또 천 일을 어리석게 붉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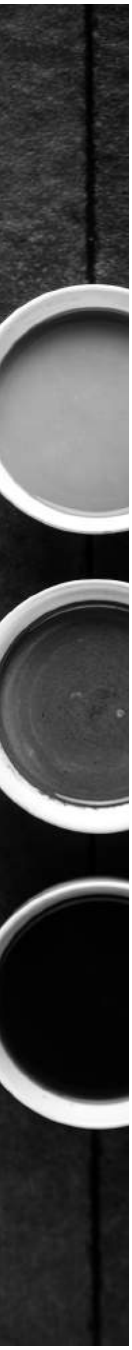
백일홍나무 아래 붉은 강이 흐르고,
우리 사랑은 그렇게 긴 강의 기억과 같으리니

내가 없는 이 자리도
붉다, 아직 어리석게 붉을 것이다.

아, 아직 우리의 사랑은 붉다.
아직 우리의 사랑은 붉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가끔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의 불가능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기도 한다. 우리는 그것을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부른다.” 작년에 나온 책『사랑 혹은 상처 나를 꽃피우다』, 노태맹 글, 차규선 사진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 무렵 의사인 그는, 구미 공단의 굴뚝 위에서 무려 405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해고노동자 차광호를 진료하고 도와주기 위해 고소공포증을 무릅쓰고 10여 차례 지상 45m 상공에 올라간 바 있다. 시대의 어둠속에 숨어 보이지 않는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며, 불가능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어리석게 붉”은 사랑. 이것은 육사의 금강심이 내장하고 있는 ‘비극적 구조’와 다르지 않다. 외면적으로 독립운동가와 의사라는 전혀 이질적인 직업을 가진 두 시인을 한통속으로 연결하는 아득하고 단단한 끈, 그것이 바로 시의 길이 아닐까.

DaeMun



작은 문학관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 이육사 문학관 개관의 의미

시인 | **이 하 석**

"2005년 경북대 교수로 왔죠. 자존심이 무척 상하더라고요. 대구 출신의 유명 시인은 많은데, 변변한 문학관 하나 없다는 게 화가 났죠. 그래서 육사 문학관을 만든 겁니다."

한 신문 인터뷰에서 박현수 교수가 한 말이다. 대구에 변변한 문학관 하나 없는 건 문학 전공 교수에다 시인으로 대구의 문학에 대한 기대를 잔뜩 갖고 이 지역의 국립대학에 부임해온 이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전국에 즐비한 게 문학관들인데, 유독 이상화 이장희 이육사 같은 뛰어난 시인들을 배출한 대구에 기념관 하나 없는 현실이 쉬 납득이 안간 것이리라. 늦게나마 문을 연 대구문학관이 있지만, 이는 종합문학관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박현수 교수는 의미 있는 문학관을 만들기로 작정한 것일 게다. 그리하여 지난 5월 10일 사재 3억 원을 들여 대구 중구 경상감영 1길 67-10번지의, 공구골목으로 유명한 북성로의 한 골목 안에다 '264작은문학관'을 개관했다. 5월 10일은 이육사 시인의 생일이어서 그날로 개관일을 잡았단다. 이곳에 문학관을 짓기로 한 것은 이육사와 연고가 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육사는 1904년 안동에서 태어나 1920년 대구로 이사했다. 이후 1937년 서울 종로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중구 일대에서 작품 활동과

사회운동을 했다. 그가 처음 대구에 와서 머문 곳은 당시 일본 사찰인 편조원북성로 서문로교회 인근 숙부의 집이었으며 이후 가족 모두가 남산동 662-35번지에 자리 잡아 17년 동안 살았다. 1922년에는 교남학교현 대륜고등학교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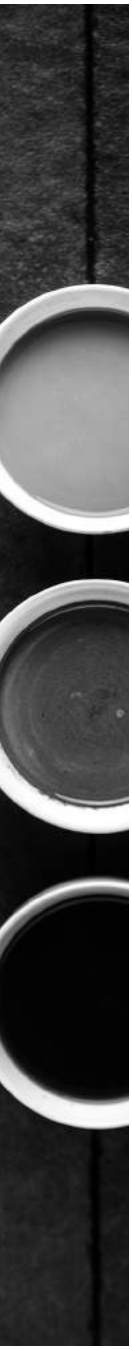
박현수 교수는 친형 박광수씨와 함께 2억여원의 사비를 들여 지난해 5월 이 집터를 매입했다. 대구시 중구의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4천만원의 지원을 받았고, 건축, 문학계의 도움도 받았다. 문학관은 2층 목조 건물로 전체 면적은 50.2㎡15평다. 1935년에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회사 '오피스아키텍톤'이 문학관을 설계했다. 공사 후 내부 디자인은 출판사 '사월의눈'이 맡았다. 그리하여 2개월간의 디자인 작업을 거쳐 8월 착공한 뒤 거의 8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264'는 대구에서 기자 생활했던 이육사의 필명이자 수인囚人번호다. '작은문학관'이란 이름을 굳이 내세운 건 문학관이 15평 남짓 되는 공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층은 커피숍과 특별전시관이, 2층은 '대구 중심의 육사 관련 자료들의 전시관'으로 꾸몄다. 카페와 기획전시실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면 당시 이육사 시인이 동료와 주고받던 편지와 친필 시, 사진 등 50여점이 벽에 걸려있다. 맞은편에는 시집 10여권이 전시돼 있다.

작은문학관을 바로 보여주는 홍보용 책자도 냈다. 육사의 필명 '264'에 맞춘 264쪽 짜리 포켓북이다. 제목이 '264작은문학관'이다. 문학관의 각 전시물마다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 숫자가 포켓북 쪽수에 해당되어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그의 이름을 딴 문학관은 지난 2004년 안동에 건립된 이후 전국에서 두 번째다. 박 교수는 "공간은 작지만,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꾸몄다"고 했다. 이 문학관이 작아도 알찬 점에서 "대한민국 최고 문학관이라고 자부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런 자부심이 2층 전시관 천장의 상량문에도 드러난다. 육사의 외동딸 이옥비 여사가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육사 詩 '광야' 중'라는 구절을 또박또박 썼다. 박 교수는 이 구절을 "비록 작은 문학관이지만 대성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일이야 말로 가장 위대한 농사의 첫걸음임을 은연중 강조하면서, 자신이 꾸민 문학관이 그렇듯 대구문화의 텃밭을 가꾸는 선구적인 일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리라.

유럽이나 일본에는 작지만 전문성이 강조되는 기념관이나 박물관들이 많다. 264작은문학관도 그



처럼 당돌하고 내용이 알차다. 기실 우리나라의 것들은 대체로 크고 우람하게 짓는다. 겉멋을 너무 부리지만, 속은 텅텅 빈 상태가 많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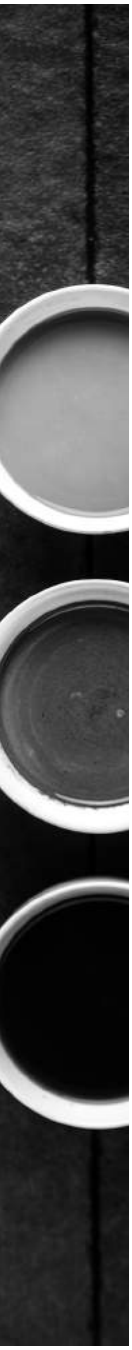
이에 비해 있는 그대로의 삶의 현장을 살려서 고스란히 문학관으로 드러내는 게 유럽의 문학관인 듯하다. 물론 작가에 따라 크게 문학관을 세우기도 하지만, 유럽에 여행을 하다 보면 작가나 문인들이 살던 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물관이나 기념관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과도한 내세움이나 거짓된 포장이 거기에는 끼어들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들 작은 문학관이나 기념관, 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은 거대한 건물로 그 기세를 과시하려는 데서 오는 압도감 보다는 더 밀도 있고 독특한 분위기를 드러내며, 한 작가나 시인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어 특이한 감동을 자아낸다. 거대한 건물 속에 꾸며진 무대 같은, 선전 문구같은 장치나, 전시가 보여주는 과장되거나 가식적인 것보다는 시인이나 작가가 살았던 공간의 실상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역사감과 전통의 의식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작고 아담한 문학관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상적이며, 친근하고 오래 머물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 크다고 다 좋은 것만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나 국가적인 사업이랍시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문화적 넌센스가 팽배한 지금, 264작은문학관은 하나의 문화적인 역습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문학관 수는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많은 문학관들이 연이어 개관되고 있다. 1992년 부산에서 문을 연 추리문학관 이후 지금까지 문을 연 우리나라 문학관의 수는 통틀

어 60여 곳이나 된다. 1997년부터 중앙 · 지방 정부의 문학관 건립 지원 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문학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문화부문 시설 인프라 조성 정책이 60~70년대에는 지방문화원이, 80~90년대에는 문예회관이, 1990년대 이후에는 문화의 집으로 특징지어진다면, 이제는 문학관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문학적 성과를 되새기' 고, 이를 지역 문화의 전형으로 떠올리면서, 동시에 이를 '관광상품화 하겠다' 는 의욕으로 문학관 조성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의 관광화라는 것이 더 중시됨으로써, '문학 본래의 모습 중시' 는 뒤로 밀리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문학관의 존재 근거는 무엇일까. 두 가지 점이 우선 떠오른다. 하나는, 문학유산의 보존과 전승이요, 다른 하나는, 그 지역 문학 활동의 모체 역할이다.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모자란다면 아마 공공기관에서 문학관을 지어주고 지원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문학관은 기본적으로 문학유산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문학 활동의 모체 역할을 충실히 할 때라야만 공공성을 갖는다. 제아무리 뛰어난 문학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철저히 개인의 명예욕과 가문의 영광에 복속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줄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문학관의 공공성에 대해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정우영)

라는 지적이 따끔하다. '문학유산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문학 활동의 모체 역할' 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아울러 그 전문성을 살려내면서 문학관이 그 지역의 문화중심이 될 수 있는 활성의 생명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관 운영의 주체가 민간 전문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운영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위탁이나 위임만으로는 문학관 운영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간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내 문학관의 콘텐츠는 책 · 사진 · 유품 등이 대부분이다. 이를 전시하고, 재해석하면서 작가의 문학세계를 다양하게 조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질과 양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수집해야 하며, 그것을 해석하는 열린 문학적 안목도 필요하다. 문학관이 끊임없이 지역의 문학자료를 발굴하고 생산적인 담론을 만들어 가느냐가 활로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때문에 전문가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게다. 한 문인의



지적처럼 "학문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비전문가가 문학관의 운용을 책임질 경우 문학관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264작은문학관은 적지 않은 기대를 갖게 한다. 박현수 교수는 시인이며, 문학평론가로 이미 상당한 업적을 이룩했다. 특히 이육사의 연구에 오래전부터 힘써왔으며, 그 성과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점에서 264작은문학관은 앞으로 작지만, 아주 알찬 기획전들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육사 시인의 자료 해석을 자신 있게 열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졌다고 할 수 있다.

264작은문학관 개관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이를 계기로 되어 앞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문학관들이 많이 개관될 전망이다. 한 작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이가 이를 추진하면 전문성이 두드러지고, 새로운 자료의 발굴 및 해석에 큰 도움이 되며, 소박한 문학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색다른 경험을 하고, 한 작가의 삶을 기억할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문학관은 과거는 물론 현재의 삶이 '잘못 만들어진 사실' 안토니오 가모네다 임을 지적하면서, 미래를 새로 만들어보일 힘을 얻게 하는 공간이라고 나는 믿는다. 문학이 가진 새로운 세계의 창조의 힘과 상상력, 정화력 때문이다. 거기에는 허세와 부유가 있을 수 없다. 오직 진실한 모습만이 '가난한' 자세로 있을 뿐이다. 264작은문학관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가늠한다, 전망한다. DaeMun



이육사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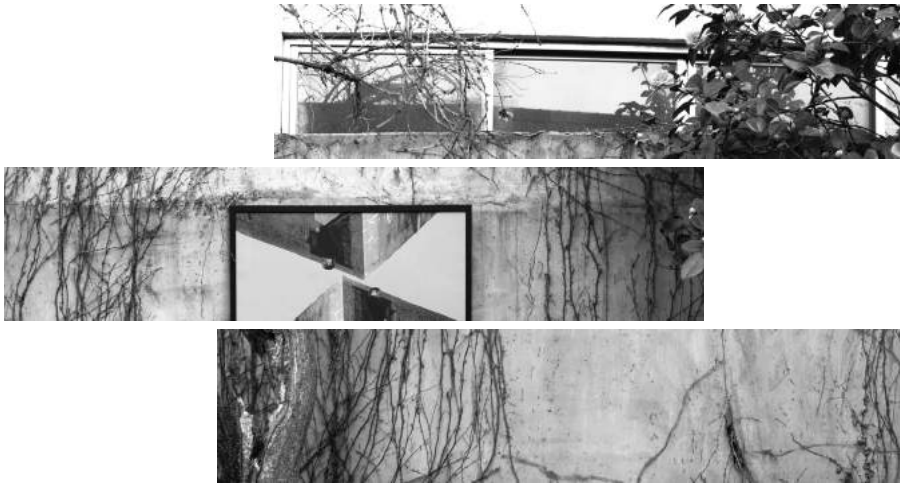
아트클럽 삼덕 청년작가의 꿈을 키운다

영남대학교 회화전공 겸임교수 | **최 성 규**



삼덕, 추억과 기억의 거리

삼덕 소방서 건너편, 대구에서는 오래된 재즈바Jazz Bar인 올드블루Old Blue가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경대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골목은 대구 미술계의 추억이 어린 곳이다. 이곳은 1990년대 일찍이 자리한 현대 미술가협회가 운영한 공간인 '스페이스 129'가 있던 곳으로 당시 많은 현대 미술가들이 드나들던 골목이었다. 필자 역시 대학원 시절 그곳의 전시를 보기 위해서 많이 왔던 거리로 기억한다. 훌쩍 시간이 지난 지금 2016년, 이 골목은 저녁이 되면 젊음의 거리로 불야성을 이룬다. 유명한 술집과 화려한 음식점들이 이곳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길 안으로 몇 발자욱만 들어가면 화려한 거리와는 대조적인 추억 속에서만 있을법한 정겨운 좁은 골목길이 나타나고, 오래된 집들이 이어진다. 대구의 새로운 전시공간으로 올해 문을 연 아트클럽 '삼덕'은 꼉충 시간을 건너뛴 듯 한 이 좁은 골목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다. 아트클럽 '삼덕'은 작년 여름 〈유동집기〉전을 치루고 2015년 가을동안 리모델링을 거쳐서 현재 4번째 전시를 기획 중에 있다.



독립유공자의 집 그리고 〈유동집기〉

〈유동집기〉
2015년 8월 4일(화)–8월 14일(금)
오　　픈 : 2015년 8월4일(화) 오후5:00
참여작가 : 김보라, 김혜현, 김현진, 박준성, 우미란, 신명준
기　　획 : 김혜현, 신명준

대구 지역의 또 하나의 독특한 전시공간으로 활약할 아트클럽 '삼덕' 은 독립유공자 신재모 선생의 집이다. 해방 직후 지어진 신 선생의 집은 현재 독립유공자의 집으로 지정돼 있다. 신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칠곡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대구 진우연맹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무정부주의 계열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 집은 지난 10여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으로 남아 있다가 신 선생의 증손주인 신명준군이 2015년 상반기에 그룹 썬데이페이퍼에 전시 공간으로 제의하면서 새 이름을 얻게 됐다. 애초 이곳의 이름은 '아나르케' 였다. 당시의 공간 명 '아나르케' 는 고대 그리스어 'an(부정) + arche(지배): 지배 없음' 에서 근거하였으며, 이는 신재모1885–1958 독립운동가의 무정부주의계열의 독립운동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정한 이름이었다.

〈유동집기〉는 '아나르케' 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공간의 첫 번째 전시이자 아트클럽 '삼덕' 의 첫 전시이기도 하다. 〈유동집기〉전은 대구 지역 내 독립유공자의 집으로서의 아나르케, 대구 지역 작가로서의 공간 아나르케를 젊은 작가들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의미를 가졌다. 이는 예술가로서, 지역의 젊은 청년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 가야하고, 어디로 가야할지와 같은 지역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며, 삼덕동의 공간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작가 스스로의 생태환경 전반에 대한 자성적

혹은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유동집기〉전은 '좌표위의 나'를 표방한다. 어떠한 실천이 있기 전에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선험적 이해'인데, 이는 일련의 독도讀圖법과 같다. 독도법은 쉽게 말해 지도를 보는 법으로, 방위를 파악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공간 아나르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지속가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유동집기 기획의 글 : 김혜현

썬데이페이퍼 그룹은 공간 '아나르케'가 신재모 선생의 유산을 이어 받아 미술의 자율성과 미술가들의 자치가 이어지는 공간이 되길 염원했었다. 그러므로 공간 '아나르케'는 썬데이페이퍼 그룹의 아나르케적인 성격을 또렷이 하며, 이론의 도그마와 실천의 편향성을 드러내지 않으며, 공간을 이끌어 가는 주체들의 상호협력을 고양시키는 곳이고자 했었다.

공중계단 – 아트클럽 '삼덕' 개관전

〈공중계단〉

2016년 3월 22일 ~ 4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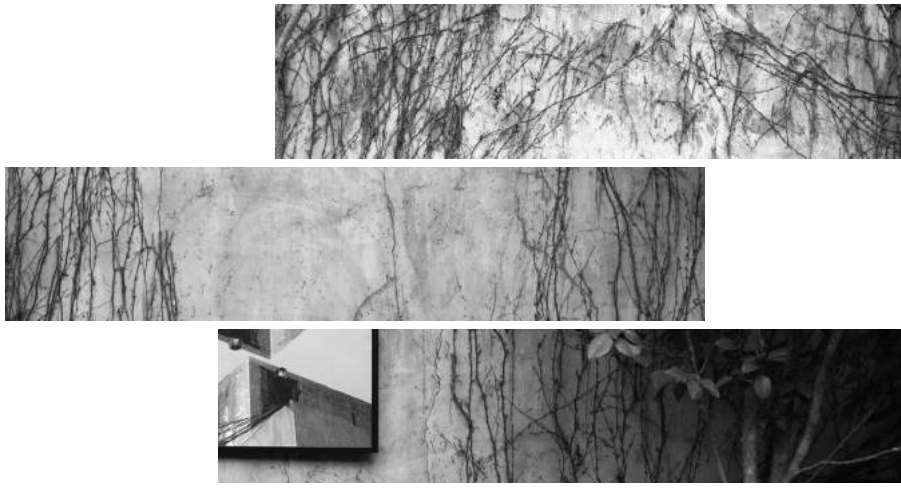
오 픈 : 2016년 3월 22일(화) 오후 7:00

참여작가 : 김도균, 김은지, 유솔, 이요한

기 획 : 김현진

아나르케라는 이름으로 맞이한 '썬데이 나잇' 행사에 오신 신재모 독립운동가의 자제분인 신성구 어르신의 제의로 다소 정치적 의미를 지닌 '아나르케'라는 공간 명 대신 아트클럽 '삼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공간 명으로 시작한 첫 전시가 〈공중계단〉전이었다. 〈공중계단〉전 역시 〈유동집기〉전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독립적인 힘,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지역의 미술이 자생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열린 전시였었다.

"〈공중계단〉은 아트클럽 삼덕의 개관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전시의 제목인 '공중계단'은 비계飛階,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때 디디고 서도록 설치한 구조물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 즉 문학적 상징물이다. 공중계단은 건물이 전면에 내세워진 이후 사람



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이것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인간의 욕망을 받치기 위한 존재요 일의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기반이자, 직선들의 맞물림으로 이루어진 수학적/물리적 좌표이다. 위태로운 균형점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무기력한 일상을 깨뜨리며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똑바로 가리킨다."

공중계단 기획의 글 : 김현진

전시에 참여한 4명의 청년작가들은 현실을 여과 없이 반영하면서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적 존재인 공중계단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했었다. 또한 이들이 써내려간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태동하는 생명력과 불안한 힘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아트클럽 삼덕이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에서 이 힘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이 공간에서 생산될 예술적 담론들이 열린 가능성을 향하기를 바랬다.

청년미술을 꿈꾸다? –
'청년미술'과 '미술의 청년'

〈유동집기〉전과 〈공중계단〉전은 아트클럽 삼덕에서 열린 두 번의 청년 작가들의 전시다. 지금까지 4번의 전시를 치룬 아트클럽 '삼덕'의 전시 중 두 번이 청년 작가들의 전시였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의 미술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청년미술을 꿈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년미술은 무엇인가? 단지 생물학적인 나이로서의 청년이 만들어내는 미술이 '청년미술'인가? 아니면 '미술의 청년'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트클럽 '삼덕'의 〈유동집기〉전과 〈공중계단〉전이 진정 우리가 원하던 청년미술의 실천일까?

아트클럽 '삼덕'과 썬데이페이퍼 그룹은 '미술의 청년'과 그로서의 '청년미술의 힘'을 원한다. '미술의 청년'은 주체의 생물학적인 특징이 아니라 미술의 오래된 습관과 구태의연함을 혁신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며 자립적이고 주체적이며

자생적인 미술활동을 의미한다. 아트클럽 '삼덕'은 신재모 선생님의 집안으로부터 무상으로 전시장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영리 전시공간의 부담을 안고 있지 않는것은 아니다. 매달 지불해야 할 공간의 운영비와 기획전시가 있을 때 마다 필요한 각종 선전물의 제작은 아트클럽 '삼덕'과 같은 비영리 공간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매일 상주하는 인원을 둘 수 없으므로 구성원들이 서로 나눠서 분담해야만 하는 공간운영은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클럽 '삼덕'이 존재하고 이곳에서 '청년미술'을, '미술의 청년'을 꿈꾸는 이유는 예기치 않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살아있는 의지와 그를 통한 미술의 지속가능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트클럽 '삼덕'은 썬데이페이퍼 그룹의 또 다른 공간인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한 예술공간 '거인'과 함께 청년미술과 미술의 청년을 '꿈꾸지 않는다.' 꿈은 꿈일 뿐이고 바램일 뿐이다. 지역의 청년미술이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단지 꿈꾸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지역의 청년 미술가들은 문화의 중심인 서울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으며 더구나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중심에의 굴복과 무기력함은 살아있는 '미술의 청년'과 '청년미술'답지 않다. 불가능함과 긴 시간동안 쌓여진 무기력의 두터운 두께를 걷어내고 자신이 서있는 바로 그곳에서 깊게 뿌리내리는 것은 바로 '이곳의 미술'을 세우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꿈만 꾸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미술가들과 미술의 청년을 실천하는 미술가들이 필요하다. 아트클럽 '삼덕'의 모체가 된 신재모 독립운동가의 삶과 의지는 좌절과 불안으로 무기력과 허망함으로 나약해진 지역의 청년들과 미술의 청년을 실천할 제2의, 제3의 살아있는 청년을 '꿈꾸고 있다.'

DaeMun

재단소식

대구메세나협의회 공식 출범_기획홍보단
대구문화재단, 지역 유망 예술가 베를린 파견_예술진흥본부(예술진흥팀)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출범_경영본부
거리와 예술이 하나되는 大명동마켓!_예술진흥본부(차세대예술팀)

지역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의 중추적 역할

대구메세나협의회 공식 출범

기획홍보단



출범식과 함께 개최된 파크콘서트

(재)대구문화재단은 지난 5월 28일 저녁 7시 코오롱야외 음악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파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이와 동시에 대구메세나협의회의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민 3만 명이 행사를 지켜보는 가운데 콘서트의 사전행사로 출범식이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메세나협의회는 문화기부 참여확대를 위한 범 지역적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메세나 활동의 제도적 정착 및 안정적 운영과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예술 협력 거버넌스로써 지역의 기업, 언론,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에 출범한 대구메세나협의회는 고문으로 이재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정길 TBC사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협회 회장을 위촉했고, 손인락 영남일보사장을 수석대표로,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회장과 한국가스공사 이승훈사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문화예술계의 류형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대구지부회장, 금융계의 박인규 DGB대구은행장과 함께 한대곤 한창실업대표이사, 이은혁 (주)



대구메세나협의회 출범식

보광토건대표이사, 송세달 (주)세광대표이사가 대구문화재단의 이사이면서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학계에서는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과 김병호 대구예술대학교총장이 선임되었다.

이날, 대구메세나협의회의 출범식과 함께 열린 파크콘서트는 혁신도시 내 이전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전액 사회공헌 기부를 통해 기획된 행사로 기업의 사회공헌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실감케 했다.

행사에는 시민 3만 명주최측 추산이 집객한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K-POP 공연 등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향후 대구메세나협의회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참여위원의 규모를 30명까지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명실공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문화예술협의체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기반을 만들어감으로써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기로 위원 전원이 한 뜻을 모았다.

대구메세나협의회는 7월 중 별도의 정기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하반기 중 기부자 예우사업인 '아트아너스 명예의 벽' 조성사업을 논의 및 추진 할 예정이다. 명예의 벽은 기부자의 핸드프린팅과 사진을 새겨 후대에 영구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 수여 될 메세나 대상에게 그 첫 사례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DaeM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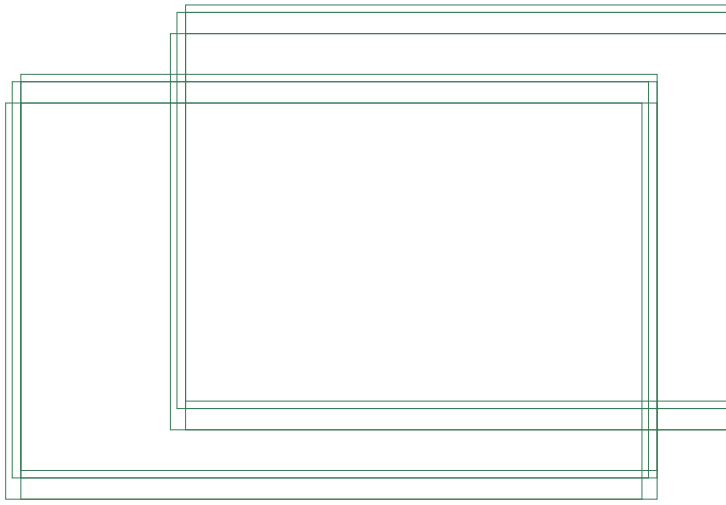
“대구문화재단, 지역 유망예술가 베를린 파견”

‘DaBe Network’ 사업 통해 세계적인 대구 대표 예술가 육성 추진

예술진흥본부(예술진흥팀)

지역의 청년예술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재)대구문화재단대표 심재찬은 시각예술 분야2명와 공연예술 분야6명 내외의 유망한 예술가를 독일 베를린에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DaBe Network Daege-Berlin Network 줄임말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대구 출신의 유망한 젊은 예술가들을 선발하여 독일 베를린 현지체류의 지원을 통해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현지에서 데뷔할 수 있는 발판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현재 베를린은 세계 각지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유럽 현대예술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미술, 연극, 음악, 현대무용 등 여러 장르에서 골고루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예술기반도 매우 두터운 도시이다. ‘DaBe Network 사업’은 대구-베를린 간 네트워크를 통해 대구 대표 예술가를 육성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선정 예술가 파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협력단체의 육성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을 함께 제공하게 된다. 이 사업은 이미 작년 말 사업추진 방침과 더불어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예술계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지난 2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미술작가 1명과 큐레이터 1명이 최종 선정된 상태이며, 이들에게는 1년간의 파견활동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매월 100만원의 창작지원금, 레지던스 비용스튜디오 및 숙소 렌트비과 매칭 프로그램, 결과 전시를 지원한다. 파견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현지 협력단체 DISKURS Berlin디스쿠어스 베를린은 전용 전시공간과 레지던스 시설, 미술계의 전문 자문단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집중 큐레토리얼 워크숍 및 강의, 1대 1 멘토링 프로그램, 스튜디오/창작공간 방문, 전시 투어, 기획자/평론가 미팅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향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전문인 네트워킹도 제공한다.

연극 ·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음악, 다원분야 등의 공연예술 전 분야의 유망 예술가를 선정 · 지원하는 공연예술 분야는 현재 공모를 진행 중이며(5.25 ~ 6.23) 최종 선정된 예술가에게는 7월~12월의 기간 중, 독일 현지의 기관, 단체, 시설이 운영하는 레지던스, 워크숍, 커넥션 프로그램의 참여와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등의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

이번 DaBe Network 사업을 통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대구의 유망 예술가에게 세계무대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머지않은 미래에 대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DaeMun



문화융성위원회 간 협약체결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으로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출범

14개 광역문화재단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 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핵심주체로 역할 정립

경영본부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가 지난 5월 20일 제주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본격 출범했다. 한광연은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과 격차해소를 통한 문화연대 강화와 협치를 통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설립목적으로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등 14개 광역시도문화재단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한광연은 기존 2012년 출범하여 4년차를 맞고 있는 광역문화재단 협의체인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의 호혜와 협력의 정신을 이어가며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과 문화재단의 법 ·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한광연은 초대회장으로 대구문화재단 심재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강원 김성환이사장, 경기 김현태경영본부장대표이사 직무대행, 경남 장효익원장, 광주 서영진대표이사, 대전 박찬인대표이사, 부산 이문섭대표이사, 서울 조선희대표이사, 인천 김윤식대표이사, 전남 오영상사무처장, 전북 이병천대표이사, 제주 현승환이사장, 충남 이종원대표이사, 충북 김경식대표이사를 등록이사로 공히, 14개 광역재단의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협의회의 이사로 위촉하였다.

한광연은 창립총회와 함께 '지역문화, 함께 해야 할 일들'을 슬로건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총회

고 표재순 문화융성위원장이 기조강연을,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예연구실장이 '지역문화진흥법 이후 성과와 과제'를 발제하고 전북발전연구원 장세길연구위원의 '시민 문화향수권과 로컬옵티멈'을 지정토론으로 한광연의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문화융성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의 공동 추진과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문화융성위원회와 한광연 소속 회원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고 출범 이후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융성의 정책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초대회장인 심재찬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문화진흥의 최전선에 있는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정립을 새로이 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문화현장의 현안 해소와 정책적 제언, 제도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취임 소회를 밝히고, 향후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긍정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심재찬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선출된 배경에는 중앙에서의 오랜 예술현장 경험과 현재 대구문화재단 대표로 있으면서 지역의 실정까지 중앙과 지방을 두루 거침으로서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예술현장에 적용되는 정책사업의 현안에 대한 폭 넓은 행정경험이 반영되었고, 중앙서울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광연의 추후 행보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광연은 설립취지문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이야말로 문화복지 국가의 핵심'임을 명시하고 2017년 1월 출범예정인 울산과 세종을 포함하여 전국에 걸친 지역문화진흥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연내에 추진가능한 연대와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키로 하였다. DaeMun

거리와 예술이 하나되는 大명동마켓 !

– 주말아트마켓을 통한 대명동 공연창작지구 조성

예술진흥본부(차세대예술팀)

대구시, (재)대구문화재단, 남구청은 공연문화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주말아트로드조성사업 '大(대)명동마켓'을 오픈했다. 대명동마켓은 '대구의 명동을 만들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구 대명동 소극장 거리 일대에서 5월 14일에 시작되었으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매월 마지막 주는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진행한다. 대명동마켓은 창작자 참여형 플리마켓으로 인적이 드문 대명동 거리에 창의적 예술시장을 형성하고, 문화와 예술로 활기찬 대명동 소극장 거리와 청년 공감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창작자 중심의 아트마켓

대명동마켓은 획일화된 여타의 플리마켓과는 달리 창작자 중심의 아트마켓으로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의 그림, 도자기, 금속공예품에서부터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는 청년 창작자들의 구슬공예, 의류 · 악세사리, 은세공품 등 유니크함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작품들을 판매해 차별화 된 아트마켓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대명동마켓은 크게 3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창작자 핸드메이드 소품 등을 판매하는 '로드마켓존', 극단 공연홍보부스와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감마켓존', 예술 창작품 플리마켓인 '아트마켓존' 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대명동 소극장 거리에서 더 가깝게 만나는 공연예술, '대판놀자' 와 '대명동 페스타'

대명동마켓에는 아트마켓과 더불어 대구 인디밴드들의 버스킹 공연 '大대판놀자' 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노천강당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가 있는 날' 미니콘서트 '大대명동페스타' 도 개최된다. '大명동페스타' 는 인디밴드, 전문예술인, 지역 예술대학생들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공연으로 생동감 있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거리공연 '大판놀자' 는 지난 5월 14일(토) 오픈식에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라등 마을 난타팀' 의 난타공연이, 5월 25일(수) 문화가 있는 날에는 '2016 로드페스티벌' 참가팀들이 작품소개를 위한 갈라쇼를 선보이는 등 대명동 소극장 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생동감 있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시민의 손에서 손으로 전하는 대명동마켓, '대명동마켓 SNS 공유 이벤트'

대명동마켓과 소극장 공연에 직접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SNS 공유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大명동마켓 SNS 공유 이벤트' 는 대명동마켓과 소극장 공연을 경험한 시민들이 자신의 SNS에 참여소감을 업로드 할 경우 다양한 상품과 소극장 공연 할인티켓을 제공받는 이벤트로, 벌써부터 SNS상에는 시민의 손으로 해시태그 '#대명동마켓' 을 넣은 공유글과 사진들이 게시되고 있다. 3회차를 진행한 6월 현재 인스타그램에만 97개의 게시물이 올라올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

또한, 대명동마켓 팜플렛에는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명동 소극장 거리 주변상가를 대명동 핫플레이스50여곳로 소개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영화 · 드라마 촬영지 정보 등을 함께 실어 대명동의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명동 공연창작지구 조성을 위한 시작!

대구문화재단은 주말아트마켓과 함께 대명동 공연창작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하드웨어 구축을 위해서는 두 가지 사업이 추진된다. '공연예술전용공간임차지원사업 대구형창작공간지원사업' 은 공연예술 창작 및 발표 공간의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소극장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작품 제작 및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 공간규모 및 조건에 따라 월 임차료의 70%50만원 이내가 지원됨으로써 전문예술단체에게는 실질적인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공연장의 집적화를 통해 서울 대학로와 같은 소극장 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사업이다.

다음으로 '소공연장환경개선지원사업' 은 대구 소공연장의 낙후된 관객 편의시설 및 제작환경 시설의 개선을 통해 관객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기능의 다각화 모색, 작업환경의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 대표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특성화공연제작지원사업' 이 추진된다. 대구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개발 ·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5대 광역시 포함 및 해외 진출을 통해 대구 공연문화도시의 위상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구의 역사성과 문화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에 남아있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소재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발굴하거나 이를 공연콘텐츠화 한 작품을 지원하고, 극 중심의 창작 공연을 제작해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전문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한다.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문화도시조성사업과 대명동마켓



이번 대명동마켓 추진을 앞두고 대구시, (재)대구문화재단, 남구청, 계명대학교가 모여 민관협의체도 구성했다. 민관협의체는 대명동마켓 오픈 전후로 마켓운영과 진행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 주변 상권과 대명동 주민의 내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주민공연단체의 거리공연, 미니콘서트 참여와 주변 공방 입주 작가들의 아트마켓 참여를 독려해 민관이 협력하는 바른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대명동마켓 참여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참여를 원하면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대명동마켓 블로그(다음), 대명동마켓 SNS를 참고하거나 대구문화재단(430-125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DaeMun



“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
다시 시작하는 문화 100년

”

대구문화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TEL** 053-430-1276 **홈페이지** www.dgfc.or.kr **ISSN** 2287-104